문화여성

문화매일

제 1081호 2021년 7월 2일 금요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함께하는 100년 농협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광명농업협동조합
광명시 범안로 1063(하안동)
☎ (02-896-3141-4)

이임 한미 연합사령관 서훈식 및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임 한미 연합사령관 서훈식 후 가진 오찬 자리에서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라캐머라 사령관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에이브람스 사령관 재임 기간 동안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발전했고, 9.19 군사합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우병수(禹柄秀) 장군'이라는 한국 이름까지 갖고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의 세 가지 직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임 라캐머라 사령관에게 "한국 최전방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한반도 안보정세를 잘 아는 분이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면서, "전작권 전환과 용산기지 반환과 같은 한미동맹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군과 긴밀한 소통으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훈식에 함께한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늦었지만 인도태평양 사령관 취임을 축하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한국 방위에 기여하는 에이브람스 가업을 물려받았다"면서 "아버지는1953년 6·25전쟁에, 큰 형은 1962년 비무장지대에서, 둘째 형은 1993년부터 95년까지 미2사단장으로 근무했고, 장인과 매형도 한국에서 근무했다"는 인연을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한국에 주둔하게 되어 운이 좋았다"는 언급도 했다.

신임 라캐머라 사령관은 1990년대 말 DMZ에서 인접한 곳에서 근무한 경험을 공유하며 "해외근무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날이 많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기쁘고,전임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역내 평화에 한미동맹은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한미동맹이 강한 이유를 알겠다"면서 2018년 10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임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선물로 증정한 '호신문장환도'를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무형문화재 환도장이 제작한 호신문장환도(虎身紋裝環刀)는 조선시대 환도를 본떠 만든 작품으로, 칼코등이에 호랑이 모습을 장식한 환도라는 의미이고, 조선시대에 공이 있는 장군에게 칼을 하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가족을 일컫는 '식구'라는 우리말은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면서 "식구가 되는 뜻깊은 자리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리라 믿는다"며 오찬을 마쳤다.

최광수/기자

새롭게 열린 자치경찰 시대… 기대와 우려 '공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가 76년 만에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란 기대와 함께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등 우려도 나온다.

먼저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국가가 독점하던 경찰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기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경찰 개혁의 핵심 과제였던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커진 경찰의 권한 또한 줄이고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사무가 3원화 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치경찰제는 기존 모든 경찰업무를 국가 사무로 수행하던 구조에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구별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실제로 치안과 관련한 예산 심사 단계가 대폭 축소되면서 기존의 복잡했던 단계가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최대 6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자치 경찰 시행과 함께 지자체 심사후 자체 예산 집행이 가능해져 소요 기간이 대폭 짧아진다.

이 밖에도 지역별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다양한 1호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공존한다.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지자체가 맡다보니 지역 유력 인사들과의 결탁과 지역 유지와의 유착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지적이다.

위원회 자체가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로 구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또한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 자치경찰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사건을 두고 국가 경찰과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 과정에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의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해당 시도교육감이 1명씩 추천,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해 구성된다.

최정근/기자

부패 없고 청렴한 광주 공동체 함께 만든다

광주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25개 기관·단체 협약 체결

광주광역시는 7월 1일 오후 3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이용섭 시장, 장휘국 시교육감, 김병내 남구청장, 안영근 전남대학교 병원장,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부총장,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총회장, 박광복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류한호 광주YMCA 대표, 김재선 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장, 김창용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시연합 대표 등 25개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광주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에 22개 기관(공공 11, 민간 11)이 참여해 발족했고, 올해는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이 신규 가입해 총 25개 기관(공공 14, 민간 11)이 활동하고 있는 민·관 청렴 실천 협의체다.

참석한 기관들은 부패가 없는 청렴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광주시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공공부문은 채용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 성 비위 등을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직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은 윤리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협약의 구체화를 위해 기관 단체별로 자체 이행 과제와 공동이행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자체 이행과제는 ▲방문 민원인과 업무관련자에게 불편사항과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자 발송과 10개의 조직문화 개선 추진(광주시)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 향상 교육 및 부패위험성 진단(교육청) ▲주민과 행정기관의 갈등 완화를 위한 옴부즈만 설치(남구)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하도급 옴부즈만 운영(광주도시공사) ▲10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감사 담당인을 지정하는 청렴계약책임제 실시(광주도시철도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실천서약식(전남대병원)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시민사회단체총연합) ▲청렴시책 보도(연합뉴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납세 솔선수범(기독교 교단협의회) ▲SNS를 통한 청렴 캠페인(한국투명성기구) 등이다.

공동 이행과제로는 '사례공유와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으로 하고 오는 9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실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총회장이 민간부문 의장에 선출돼 공공부문 의장인 이용섭 시장과 함께 2년간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이용섭 시장은 "우리 광주가 '역사 속의 의향'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의 대명사가 됐으면 좋겠다"며 "민관협의회가 청렴 광주 실현의 구심점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덕암칼럼]말리는게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거다

지난 6월 30일 화성시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개원식을 열었다. 2011년 7월 사업을 시작한 지 꼭 10년 만이고 전국 최초로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등 인근 지자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 부지 30만1146㎡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3개 동을 포함,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8실, 자연장지 2만5300기, 봉안시설 2만6514기를 갖춘 종합장사시설로 조성됐다. 총 사업비는 1714억 원에 화장시설 사용료는 6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은 16만원, 관외 거주자는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경기 서남부권 약 383만 시민들이 수혜자라 볼 수 있는데 장례 이후의 막힌 숨통이 터진 셈이다.

먼저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마지막 보내는 고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고 추모공원의 엄숙하고 비통한 분위기 보다는 평화와 안정을 주는 첨단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번 개원에 앞서 얽힌 사연을 소개하자면 당초 추모공원은 안산이 먼저 시작했다.

2010년 6월 2일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김철민 前 안산시장이 야심 찬 계획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임기가 시작하면서 장소 선정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고 2010년 12월부터 본격 추진한 이래 2013년 7월 전면 백지화까지 약 3년 동안 양상동 추모공원 사업은 하루도 조용할 날 없었다.

지금이야 20대·21대 국회의원을 연임하면서 중후한 모습을 갖췄지만 추모공원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당선된 직후라 그의 의지는 하늘을 찔렀다.

모든 언론은 물론 든든한 지지기반이었던 재안산 호남향우회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까지 감히 그 누구도 김 시장의 사업추진에 토시를 달 여지가 없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양상동 화장터 사업은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던 필자의 보도를 시작으로 양상동 주민들과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다.

대대로 농사만 짓던 농민들과 겨우 지역 주간신문에 불과한 필자의 연대는 거대한 힘의 논리 앞에 연일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다.

충성으로 일관하던 공보담당관은 행정 광고 중단에 보도자료까지 배제하고 사소한 문구 하나 트집 잡아 필자의 가족까지 묶어 고소하는 건 기본이었다.

당시 필자는 추모공원은 필요하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절차에 불법이 있으니 훗날 죄 없는 공무원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제대로 하자였다.

누구의 관심이나 협력 없이 1년 반을 싸우다 안산시의회에 방관을 지적했고 그렇게 시작된 안산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하나 둘씩 문제점이 발견되자 이번에는 반대 위원회와 맞붙을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민민 갈등이 시작됐다.

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시민들 간에 멱살을 잡고 폭행사태까지 벌어지는 행태를 보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특위의 조사로 하나 둘씩 사업의 투명성이 약해지자 뒤늦게 방관하고 묵인했던 언론들이 합세했고 결국 3년 만에 해당 사업은 막을 내렸다.

물론 무리하게 추진하던 과정에 소요된 행정력, 벤치마킹 한답시고 외국출장 다니며 물 쓰듯 세금을 쓴 부분이나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니면 말고 식이다. 훗날 10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처럼 화성의 함백산 추모공원 개장식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한다.

제대로만 했더라면 안산에 건립되었을 함백산 추모공원, 막대한 예산 낭비와 도덕적 치욕을 남기고 끝나 버린 양상동 화장터 사건은 그렇게 종결될 무렵, 유사한 사건이 또 재연되어 대체 이 도시가 어디로 가려는지 막연하기만 하다.

양상동 화장터 건립사건이 시작된 지 정확히 10년 만인 2011년 7월 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청사진이 발표됐다.

두 개의 건축물 사이 화랑저수지를 향한 열린 공간 구조에 화랑유원지 명품화는 물론 시민들의 복합 문화공원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다.

시장 출마 당시 세월호 추모공원에 대해 시민에게 물어보고 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윤화섭 안산시장은 2021년 7월 1일 생명안전의 공간적 거점으로 자리 잡을 416 생명안전공원 공모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납골당은 처음 겪는 일임에도 마치 10년 만에 있었던 양상동 화장터가 떠오르며 왠지 낯설지 않은 데자뷰를 느낀다.

2011년 당시의 무리한 화장터 사업 추진의 주인공과 지금의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안산지역 사회에 초대형 공동묘지를 건립하려는 윤화섭 시장의 공통점은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출마할 때 마이크 잡고 큰소리 치던 연설이 엊그제 같지만 이렇게 말 바꾸기를 잘 하는 안산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바로 다음날 자신을 이민위본의 선례로 자찬하는 것은 상식과 도덕을 넘어 자포자기 상태에 직면한 것이 아니고 뭐라 받아드려야 할까.

'이민위본'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도심 한복판에 시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수백 기의 납골을 유치하면서 이롭게 한다. 지나가는 소와 개가 웃을 일이다.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이 도시의 주인공인 시민들에게 해당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 시행하는 것인지 부터 말해야 한다.

터진 입이라고 온갖 미사여구 갖다 붙이며 시장 자리가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닌데 불과 수 십 년만 지나도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기성세대가 되어 늙은 현 세대에서 지금의 상황을 추궁한다면 뭐라 답할 것인가.

필자는 말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려면 형식적인 절차로 뗌질하지 말고 지금의 시민들에게 찬성을 구한다면 그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올 하반기 기본설계에 착수해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강행된다. 정부의 정책에 짹소리 못하고 시민들의 미래야 어찌 되건 말건 일신의 안위를 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더 막막한 건 아무 관심 없는 시민들이다.

덕암/김균식

당진 합덕제, '연꽃 가득' 비대면 언택트 여행지로 각광

문재인 대통령, 해운 선도국가 '대한민국호(號)'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내 수출입 화물의 관문이자 글로벌 허브 항만인 부산 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컨테이너의 단위,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말함)급 한울호 출항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운재건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운산업 리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해운업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HMM이 신규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이 기적같이 살아났다"며 "지난해 첫 출항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 호'를 시작으로 만선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운 강국의 자존심을 다시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출항하는 '한울 호'는 한국 해운업의 화려한 부활을 완성하는 HMM의 신규 발주 20척의 마지막 선박"이라고 설명하며 "'한울 호' 출항과 함께 해운업 재건의 성과와 해운 선도국가를 향한 비전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우리 해운산업은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 선복량(배에 실을수 있는 화물의 총량)과 매출액 감소, 수출 경쟁력 약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항만·조선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해운재건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선사들의 자산과 경영 안정 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책을 가동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으로 다시 시작했다"며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총 6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최대 국적선사가 된 HMM은 2.4만TEU급과 1.6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신규 발주했다"고 설명하며 긴박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HMM은 지난해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려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올해는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으로 중소·중견 선사들의 경영도 안정화되면서 올해 해운 매출액은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15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복량을 확보해 해운 매출액을 7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해운산업 리더 국가로 도약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배재훈 HMM 대표이사는 "현 정부 출범 후 과감하고 힘 있게 추진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대한민국 해운산업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2018년 9월, HMM의 20척 초대형 친환경 컨테이너선의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톱클래스 수준의 원가경쟁력으로 재도약의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은 HMM의 부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강조한 뒤 "글로벌 선사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완벽한 재건을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전략' 발표에 이어 정책금융기관들의 친환경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업무협약, 해운협회-무역협회 상생협력 협약 체결도 이뤄졌다.

최광수/기자

오세훈표 '서울교통공사 경영효율화' 시민 안전 담보되나?

오세훈 시장이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더욱 강도 높은 경영혁신 계획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비용절감'과 '경영효율' 관점에만 치우쳐 과거 구의역 사고와 같은 위험의 외주화가 재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혁신 계획에 따르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분야별 인력 1,108명을 감축하고, 비핵심 업무는 자회사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431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인력의 약 10%인 1,539명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러한 공사의 경영혁신 계획은 2007년 오 시장 취임 이후 '비용감축'과 '경영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적극 추진됐던 민간외주용역 및 분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 경영혁신 계획과 매우 비슷하다.

과거 서울메트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2008년부터 4년간 업무와 인력을 함께 외주화하며 이직 유인책으로 전적자의 보수 및 정년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민간 위탁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스크린도어(PSD) 운영, 차량경정비 등 핵심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안전분야가 취약해졌고, 퇴직자 의무 고용과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의 설립으로 작금의 '메피아' 문제를 유발했다.

외주업체는 서울메트로에게 일감을 지속적으로 수주하는 대가로 인건비와 노사관리 부담을 떠맡았는데, 업체들은 비정규직과 청년층의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인건비 부담을 해결했다. 이는 곧 시민의 안전을 싼값에 외주로 넘기는 '효율적인' 하청구조가 되었으며, 결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청년 근로자 세 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이처럼 '효율'을 빙자한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최근 공사가 세운 경영혁신 계획이 과거와 같은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재현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편, 박원순 전임시장은 외주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를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그 결과 지하철 운영유지 관련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그간 경시된 시민 안전의 담보가 가능해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2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안전운행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를 삼아야 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특성을 망각하고 경영효율화만 따지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된다는 것을 과거 경험에서 배우지 않았나"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경영혁신이 필요한 실정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 부작용이 빤히 예상되는 과거와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경영혁신이라는 허울 좋은 계획으로 둔갑하는 일은 두 번 다시없어야 할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무분별한 구조조정만 할 게 아니라 기존 공사의 훌륭한 철도망 인프라를 활용하여 물류플랫폼사업 등 새로운 시각의 자구방안 마련을 모색해달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번 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안전이 희생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경영효율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고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시민 안전을 담보하겠다"면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목표로 한 자구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수상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 인정받아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의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김한종 의장이 의정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머니투데이가 주관한 '혁신리더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 혁신을 위한 사회발전 또는 정책·경영 등의 실현에 공헌한 리더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본상은 의정, 정책·행정, 산업, 사회, 문화, 법제, 교육 7개 분야에서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분야별 수상자를 결정했다.

의정분야에서 혁신리더 대상 본상을 수상한 김한종 의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했으며 사회적 약자의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해 9월에 제17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정치권 면담을 비롯해 시도의회 간 공조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끌어 낸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김한종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된 지금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의정,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의정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류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대표전화 : 1899-965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동작구,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아카데미 실시

동작구가 관내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관내 예비창업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사업의 일환으로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을 통해 진행한다.

참여대상은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및 학생,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등과 2021 동작구 스타트업 펀딩사업 사업화지원팀(기업) 등 총 35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창업 아카데미는 오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수강생에게 발송된 참여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 ▲디자인 싱킹과 기업가 정신 ▲회계, 세금, 재무관리 ▲4차 산업혁명시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창업을 희망·준비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스타트업 창업과 기업문화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획득 및 관리방안 ▲스타트업 생태계와 마케팅 등을 다루고,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 시간도 갖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향후 구는 다음달 창업 경진대회를 실시해 창업에 유익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하반기 중 크라우드펀딩을 추진해 자금확보가 어려운 창업자를 도울 계획이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인들에게 회계, 세무, 스타트업 마케팅까지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서구,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에 기여

1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 참석

인천 서구는 1일 화성시에서 개최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서구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94개 자치단체가 모여 만든 협의회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60여 분 간의 토론을 통해 2021년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안건 보고 및 공동협력사업을 논의했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25주년 기념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즐겁고 안전한 룰루랄라 등굣길' 사업을 우수사례로 제출해 '아동친화도시' 서구의 사례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서구가 추진하는 '즐겁고 안전한 룰루랄라 등굣길' 사업은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등굣길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실행해 옮긴 대표적인 서구의 사업이다.

특히 서구는 몇 년간 방치되어 온 인도 한가운데 있는 전봇대 3개소 이설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등굣길 낡고 기울어진 표지판 제거 ▲학교 앞 도로 주기적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학교 앞 후문 보행공간을 확보 및 바닥포장 등을 통해 사고위험을 줄이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아동과 주민이 소통하며 진행한 '즐겁고 안전한 룰루랄라 등굣길' 사업을 통해 도시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남/기자

인천독립 40년, 양적·질적 성장 속에 희망의 미래를 연다

인구는 약 3배 증가, 면적은 5배 이상 커져, GRDP는 21배 증가

7월 1일 인천광역시가 1981년 경기도에서 분리돼 직할시로 승격한 지 40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 40년 동안 인천이 양적·질적으로 눈부신 성장과 변화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1981년 직할시 승격 후 1995년 광역시 체제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산업기반 시설과 항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이 입지해 바다와 하늘을 잇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안정적인 재정과 도시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인천연구원과 함께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1년 이후 현재까지 인구는 약 3배 늘었고, 면적은 5배 이상 커졌다.

1981년 당시 114만 명이던 인구 규모는 2020년 301만 명(외국인 포함)으로 증가해 특·광역시 중 세 번째로 300만 도시가 됐다. 면적은 1981년 201㎢이던 것이 강화군과 옹진군 편입,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으로 2020년에는 1,065㎢로 커져 특·광역시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도시가 됐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도 1인당 개인소득이 증가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5년 765만 원이던 1인당 개인소득은 2020년 1,933만 원으로 2.5배 가량 증가했다. 지역내 총생산(GRDP)은 1985년 4.2조 원에서 2019년 89.5조 원으로 21배 증가했으며, 1985년에는 제조업 비중이 44.3%로 서비스업(27.5%) 보다 컸으나, 2019년에는 서비스업 비중이 47.9%로 제조업(26.4%) 보다 더 커졌다.

예산 규모는 1981년 816억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18조4천억 원으로 225배나 커졌고, 사회복지비는 1985년 90억 원에서 2021년 7.5조 원으로 835배나 증가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도로 길이는 1981년 632㎞이던 것이 2020년에는 3,520㎞로 늘어나 특·광역시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는 1999년 인천도시철도 1호선, 2016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된데 이어 2021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선(인천석남역) 개통까지 철도연장이 총 140㎞로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1년 2만여 대에서 2020년에는 167만6천여 대로 80배 가량 증가했으며, 주차장 수도 1993년 3,181개소에서 2019년 67,021개소로 21.1배가 증가했다.

환경특별시 인천과 함께 안전한 도시 실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수관로 길이는 1981년 460㎞에서 2019년 5,670㎞로 늘어났으며, 1인당 공원면적은 1989년 2.4㎡에서 2020년 12.2㎡로 늘었다.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는 1995년 76㎍/㎥에서 2020년 34㎍/㎥로 감소했으며, 아황산가스는 1989년 0.065ppm에서 2020년에는 0.004ppm으로 감소했다.

시민안전망 확충을 위한 폐쇄회로(CCTV)는 방범용의 경우 2013년 2,471대에서 2020년 12,090대로, 학교는 2013년 8,534대에서 2020년 16,369대로 크게 늘었다.

문화 분야에서도 많은 성장을 이뤘다. 1982년 문화회관, 1994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는 등 2003년 23개이던 문화기반시설이 2019년에는 115개로 크게 증가했다. 1981년 단 1개에 불과했던 공공도서관도 2020년에는 60개로 크게 증가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구단을 연고로 두고 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비롯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장애인아시안게임, 2015년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의료기관은 1981년 360개에서 2019년 3,371개로 9.4배 증가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수도 1981년 64명에서 2019년 1,239명으로 19.4배 증가했다.

사회복지예산은 1981년 90억 원에서 2020년 3.8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회복지시설수는 1981년 28개소에서 2019년 2,869개소로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육과 교육 인프라도 크게 향상됐다. 어린이집은 1993년 251개이던 것이 2021년에는 1,833개소에 이르고 있다. 초등학교수는 1981년 55개소에서 2020년 263개소로 4.8배 증가했으며,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1981년 60.5명에서 2020년 22.7명으로 크게 감소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고등교육 학생수는 1981년 36,220명에서 2019년에는 75,756명으로 증가했다.

박재연 시 정책기획관은 "1981년 경기도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재정운영과 도시계획으로 인천시민의 요구에 민감히 대응하면서 현재의 도시발전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한다"며 "인천형 뉴딜, 환경특별시 정책 등을 통해 양적성장뿐 아니라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인천독립 50주년을 맞는 2031년에는 인천이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 도시로 평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은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관은 2019년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토이 로봇 '부모사랑 효돌'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로봇은 내장된 센서를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교감, 생활·건강관리, 안전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생활체육지도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해 개별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복지서비스 '건강복지라이더' 사업,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02년에 설립된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오리로22길 5)은 어르신, 저소득 가정 등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밑반찬·의류·의료비 지원, 혹한·혹서 대비 희망나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미성/기자

송파구, '서울을 이끄는 송파' 4년차 시작! 구민과 현장에서

송파구가 민선7기 '서울을 이끄는 송파'의 4년차 첫날을 접종센터 방문 등 구민 안전을 위한 현장 행보로 시작한다.

출범3주년 당일인 7월 1일 오전에는 박성수 구청장 주재로 특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확진자 수와 새로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에 대비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할 예정이다.

회의가 마무리되면 바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현장 구청장실로 이동하여 백신접종상황을 살핀다. 박 구청장은 백신 접종을 위해 방문한 주민들에게 번호표를 직접 나눠주고, 이상반응실에 대기 중인 주민들을 격려하며 직접 방역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방역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 자원봉사자,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광평교로 이동하여 송파둘레길 '탄천길 개통 기념식'에 참석한다. 지난 50년 간 막혀 있던 탄천길이 열리면서 온전한 순환형 송파둘레길이 완성되는 것을 기념하며 새롭게 조성한 산책로를 주민들과 함께 걷는다.

오후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례조례를 개최한다. 지난 3년의 성과를 함께 이룬 직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고 남은 1년에 대한 구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남은 임기동안 '일자리 1위, 교육1위, 삶의 질1위'라는 민선7기 목표 아래 역점 사업 마무리에 집중하고, 지난 3년의 성과인 BEST+시대를 넘어'Beyond the BEST+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임기 마무리까지 각계각층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구민의 행복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진력하겠다."면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에서의 삶이 자랑스럽도록 공약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하여 알찬 열매로 보답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오는 7월 5일부터 12일까지를 '현장방문 주간'으로 운영한다. 박성수 구청장과 관계 부서 담당자 등이 문화관광, 안전 및 환경, 기업 및 일자리, 소통과 화합 등을 주제로 관내 주요 시설과 민생현장을 두루 살핀다.

정동희/기자

관악구, 청년 창업가와 함께하는 어린이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운영

관악구가 코로나19로 다양한 체험활동 및 진로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을 진행한다.

'어린이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은 청년 창업가와 함께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굴하고, 창의적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창업 활동교육으로 구는 지역의 창업 문화 확산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구와 청년 및 벤처 창업 관계자가 협업하여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고, 창업가 및 교수로 구성된 강사들이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어린이의 아이디어를 담은 창업 제품을 만들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교육은 오는 7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7주간 관악구 평생학습관 5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창업을 위한 사업 목표 설정, 아이템 발굴, 자금관리, 생산 및 판매, 마케팅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담아 전통시장, 샤로수길, 고시촌 등 지역을 홍보하는 브랜딩 작업과 관악구를 상징하는 강감찬장군, 관악산, 별빛내린천 등을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으로 제작해 판매도 할 계획이다.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 20명을 모집하며, 수강신청은 오는 7월 16일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청년, 벤처 창업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굴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울시, 한강교량 경관조명 여름밤 수 놓는다 … 코로나 위로, 도시에 활력

7월1일부터 26개 한강교량의 경관조명이 모두 가동에 들어가 여름밤 한강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점등 시간도 여름철 한시적으로(7. 1 ~ 9. 30) 23시에서 24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아차산대교를 시작으로 올 6월말 마포대교까지 6개소 경관조명 확대사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 20개소만 불을 밝혔던 한강교량 경관조명이 7월1일부터는 26개소 모두 점등된다.

7월 1일부터 9월 30까지 "일몰 후 15분 ~ 23시 · 24시(1H)"로 연장한다.

한강교량 총 29개 중, 앞으로 점등하는 한강교량 경관조명은 26개로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불을 켜는 교량 6개소는 마포대교, 천호대교, 아차산대교, 두모교, 서호교, 노량대교다. 나머지 3개소는 철새보호구역 등을 이유로 경관조명을 가동할 수 없는 교량이다.

특히 마포대교는 '따스한 빛을 품은 위로와 치유'를 테마로 새 옷을 입는다.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온백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해 주변을 찾는 시민들에게 심적 편안함을 선사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주변 도로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 시인성 높고 선명한 LED 조명을 사용하고, 여의도 한강공원 조명색과 유사한 색을 활용해 주변과 조화

를 이루도록 했다.

교량 기둥 사이 측면 부분(거더 측면 부분)은 서울의 대표 색 중 하나인 하늘색과 황토색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해 서울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관람용' 분수 9개소도 7월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인원 밀집 우려가 적은 소형 분수 4개소(여의도 안개분수, 이촌 벽천분수, 뚝섬 벽천·조형물 분수)를 올해 5월 조심스럽게 운영을 재개한 데 이어, 추가 5개소도 운영한다.

신체접촉 및 감염우려가 높은 물놀이형 시설인 2개소(여의도 물빛광장, 난지 물놀이장분수)는 운영에서 제외되며, 향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운영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중 세계 최장 교량분수(1,140m)로 기네스북에 오른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를 비롯해 6개 주요 분수의 성능을 개선했다.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는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 분수 쇼가 보다 화려해진다. 기존에 단순 분수였던 '난지거울분수'는 음악분수로 변신했다. '뚝섬 음악분수'는 물줄기 패턴이 다양해졌다. 기존엔 물줄기가 높고 낮게만 나왔다면, 앞으로는 음악에 맞춰 클라이막스일 땐 물줄기가 더 세차게, 잔잔할 땐 약하게 나오고, 박자에 맞춰 나오는 등 연출 능력이 향상됐다.

이밖에도 여의도한강공원의 경우 물빛무대 양쪽에 분수를 추가로 설치했다. 향후 무대 공연과 분수의 물줄기, 다채로운 LED 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보다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수마다 특색과 매력, 가동 시간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분수 가동시간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볼거리, 분수에서 확인하거나 기반시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한강 곳곳의 조명과 분수 시설 재가동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도시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강의 볼거리를 다양화해 코로나 이후 늘어날 관광 수요를 대비한다는 목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7월1일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한강교량의 경관조명과 한강공원 분수도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한강공원이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코로나 이후 국내·외 관광객 수요에 대비해 한강을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화 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용산구, 오는9일까지 사회적 경제 주간 기념행사

서울 용산구가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을 기념, 1일부터 9일까지 '2021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를 연다.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경제와 착한 소비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행사 주관은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이며 슬로건은 '힘내요 사회적경제!'다.

세부 행사로는 사회적경제 영화제(함께 보는 행복의 경제학)과 벼룩시장(플리마켓)을 준비했다.

영화제는 8~9일 양일 간 한옥 북카페 만리서재(청파로93길 42)에서 열린다. 8일(오후 3시)은 구민, 9일(오후 5시)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인들과 2011년 작 다큐멘터리 영화 '행복의 경제학'을 함께 관람하기로 했다.

인원은 회당 최대 12명으로 제한한다.

행복의 경제학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세계화가 아닌 '지역화'를 제시하는 영화다.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 등이 연출했다.

특히 9일에는 영화 상영 후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와 온라인 대담을 갖는다. 양극화, 환경파괴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부작용과 극복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신동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이 통역을 맡았다.

센터는 2일(아름다운가게 숙대입구역점), 6일(행복중심용산생협 아현매장), 8~9일(만리서재) 4회에 걸쳐 플리마켓 행사도 개최한다.

전통 매듭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시공예협동조합', 이주여성들이 스스로 자립을 위해 만든 '톡투미다방 사회적협동조합',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꿈 협동조합', 후암동 주민들의 기술력으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드는 '후암공방'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행사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5시, 우천 시에는 취소된다.

조정옥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은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간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독서당로 46 한남아이파크 애비뉴지하1층)는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가 위탁 운영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협업,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및 홍보마케팅 등이 있다.

최만식/기자

인천시, 대한민국 제1호 스마트 관광플랫폼 '인천e지'출시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개항장 일대를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앱 하나로 즐길 수 있는 '인천e지 스마트 관광플랫폼'의 정식 서비스를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인천e지 스마트 관광플랫폼'은 지난 2020년 9월 인천이 대한민국 제1호 스마트관광도시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중구청, 인천관광공사 등 9개의 민간 컨소시엄사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한 ICT기반 스마트 여행 어플리케이션으로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인천e지 앱의 인공지능(AI) 여행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설문을 통해 나의 여행취향·동선·일정·동반자 유형 등을 고려한 개인화된 여행패스를 추천받을 수 있고 관광객은 개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패스를 수정할 수 있다.

나만의 패스가 생성되면 맞춤형 여행가이드북과 최적의 동선 안내가 추천되며, 관광객은 지도에 따라 주변 맛집·카페·관광지·숙박 등의 정보를 보고 각 장소에서 제공되는 스마트 편의 서비스(오디오가이드, 쿠폰 및 결제서비스, 짐보관, 모빌리티 등)를 원스탑으로 즐길 수 있다.

모바일 하나로 날씨와 혼잡도를 파악해 여행할 수 있고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통해 맛집에서 줄을 서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외국인도 손쉽게 모빌리티 예약(호출)이 가능하며 여행지에서는 짐을 맡기고 두 손 가볍게 여행할 수 있다. 여행 중에 겪는 불편함은 실시간 다국어 문자채팅 서비스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개항장 일대를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0여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곳곳에 설치했으며, 인천e지 앱의 서비스인 AR/VR 체험, 오디오가이드 등을 데이터 사용의 부담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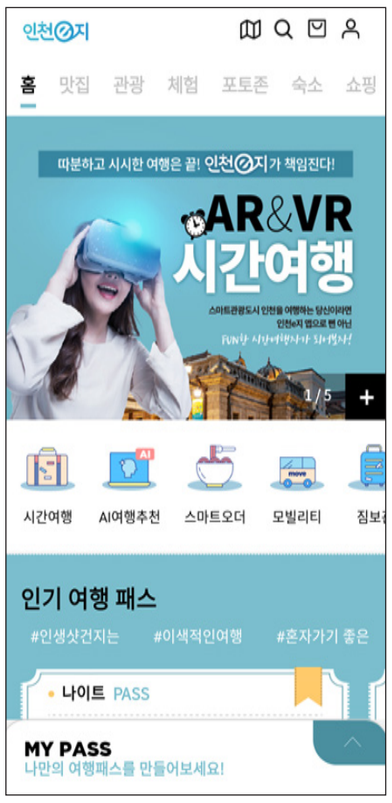
개항장 일대에서는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의 스마트기술을 통한 차별화된 시간여행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대불호텔전시관, 근대건축전시관, 한중원 등 개항장 일대에서는 과거 실존 인물이 AR도슨트로 되살아나 장소의 역사적 배경을 생동감 있게 설명해준다.

제물포 구락부와 짜장면 박물관에서는 인천e지 앱과 더불어 현장에 비치된 VR기기를 통해 더욱더 몰입감 있는 시간여행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자유공원전망대에서는 19세기 당시의 개항장 모습을 360도 파노라믹 뷰로 감상할 수 있다.

인천e지 앱과 개항장 일대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수집된 이용객 관광 데이터는 인천 스마트 관광도시 플랫폼내에 저장되고, 정제·통합 과정을 통해 관광 마케팅 및 지역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적극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조승환 시 재생콘텐츠과장은 "새롭게 출시된 인천e지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된 경험과 편리함을, 지역에는 디지털 경쟁력 강화로 인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은평구, '서 · 삼 · 구 달빛따라 걷기' 개최

은평구는 일상 생활 속 걷기생활을 실천하고자 서울 서북3개구(은평·마포·서대문)와 연합하여 5월부터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였다. 그동안 '둘레길 나혼자 한바퀴 걷기','전통시장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여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왔고, 이번 7월에 진행되는 '서 · 삼 · 구 달빛따라 걷기'챌린지는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과 풀냄새를 맡으며 신체와 마음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의도로 기획했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워크온' 어플 설치 후 커뮤니티 모드에서 '은평구 걷기동아리'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챌린지 모드에서 '서울 서북3구 연합(은평·마포·서대문) '서 · 삼 · 구 달빛따라 걷기' 참여하기를 누르고 기간(7월 5일~25일) 중 걷기 코스에 따라 걸으면 된다.

걷기 코스는 [증산역 ↔ 해담는다리 ↔ 월드컵경기장(월드컵공원) ↔ 문화비축기지 ↔ 하늘공원 ↔ 평화공원 ↔ 마포구청역]으로 총 8km,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며, 걷기 코스 구간은 순서 상관없이 운영 기간 안에 걸으면 누적되어 달성률이 올라간다.

은평구보건소(소장 김시완)는 "선선한 저녁 시간을 이용해 해당 코스를 걸으면 멋진 야경을 감상하면서 서북3구 도심의 매력도 느낄 수 있고, 걷기코스 달성에 따라 즐거움과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걷기 실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광진복지재단, 어려운 이웃 전화 한 통으로 돕는다

광진구 광진복지재단이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전화 한 통으로 발굴·지원하는 '전화위복' 사업을 추진한다.

발굴대상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구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이웃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주요 사례로는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실직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정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지만 별도 지원이 필요한 가구 ▲월세·공과금 등이 체납되어 어려운 형편이 의심되는 가구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은둔형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이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재산이 3억1,600만원 이하, 금융자산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 납입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해당 가구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한 후 필요한 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강동구, 서울시 최초 전기자전거 구매비용 지원

강동구는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최초로 전기자전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중 150만 원 이하 생활형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면, 1가구당 1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 12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금년 5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금 예산 3,0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추진됐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동구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된 자전거 판매소에서 구입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다만, 온라인 구매시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구민으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에 한하며, 신청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강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전자 추첨을 통해 100명의 예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격 여부를 검증한 뒤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7월 1일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사업이 구민의 건강증진과 관내 자전거 판매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친환경 교통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규석/기자

김해시, 접종 이상반응 신속 대응 응급실 실태점검

8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연령층 확대 점검 강화

김해시는 8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연령층 확대(18~54세)에 따라 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료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7개소의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지난 29일 기준 1차 접종은 11만7,299명,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2만7,883명이며 시는 11월말까지 30만명이 1,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김해중앙병원, 갑을장유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3개소(조은금강병원, 김해복음병원, 강일병원) ▲응급의료시설 2개소(김해삼승병원, 메가병원) 총 7개소이다.

점검결과 발열이 없는 이상증상의 경우 응급실 내 정상 진료 중이며 발열을 동반한 경우에는 응급실 진입 전 격리시설 또는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진료 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주말 이상증상 발현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적절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진료 거부 등 시민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김해중앙병원, 김해복음병원, 강일병원 3개소는 격리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조은금강병원과 갑을장유병원은 각종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격리시설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은 연말까지 격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가 필요하다"며 "예방접종 후 발열, 근육통 같은 가벼운 신체 반응은 항체를 만들기 위한 면역반응으로 보통 2~3일 내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진료의사와 상담하거나 응급실 방문 후 진료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안성시, 장마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안성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마철을 대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가축분뇨(축산폐수) 무단 방류하거나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야적 방치 등으로 환경오염이 크다고 판단, 특별점검을 시행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점검대상지는 주요하천에 인접해 있는 축사 밀집 지역, 공공수역 인접 축사 및 상습 민원 발생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불법 퇴비야적 지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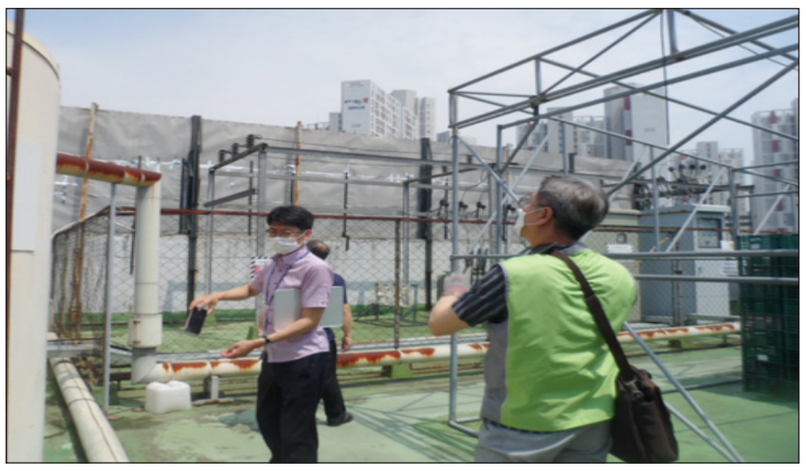
점검사항은 ▲축산분뇨 또는 퇴비를 하천 주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집중호우 때 수역에 축산폐수 무단 배출 ▲미부숙 퇴비로 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노후 처리시설 등이며, 우천시에는 야간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월,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지도점검 업무가 축산정책과에서 환경과로 이관된 이후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사법처분 9건, 축사 관리기준 위반 등 행정처분 12건 등을 적발했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 예정"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관리실태 자체 점검 및 퇴·액비 적정 처리 등 악취 발생을 저감하여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만들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종균/기자

용인시, 여름철 강풍·태풍 대비 취약시설 안전 점검



용인시는 30일 여름철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나 태풍을 대비해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강풍 등으로 붕괴나 낙하 등의 위험이 우려되는 관내 대형 옥외광고물 설치 건물 32곳과 실외골프연습장 27곳 등 59곳이다.

시는 시 안전관리자문단과 담당부서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16일까지 이들 시설을 점검키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형광고물, 야외 설치 구조물 등의 볼트·너트 고정상태와 용접상태, 콘크리트 기초부 균열·변형·전기설비 관리 및 도장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시간이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로부터 시설 보완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재난으로 시설물 낙하나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오태완 의령군수, 자굴산,한우산 주요사업장 추진상황 점검

오태완 의령군수는 지난 30일 자굴산,한우산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굴산 일원에는 300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 휴양, 문화, 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2021년 하반기 개장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토목, 조경 등의 기반공사와 숲속의집, 카라반 등 숙박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며, 전시시설 공사와 각종 시설물 정비 및 보완중에 있다. 향후 네트어드벤처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과 도깨비 황금동굴이 휴양림 내에 함께 조성되면 관광 자원화의 시너지 효과가 높을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우산 일원의 주요자원인 꽃, 호랑이, 바람, 별을 테마로 하는 에코공원 조성사업(35억 원)과 호랑이 쉼터에 놀러간 도깨비 만들기 사업(20억 원),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사업(45억 원) 등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오태완 군수는 "자굴산과 한우산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최고의 산림관광지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안전신문고로 불법개조(튜닝) 차량 단속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도로에서 화물차나 일반 차량이 적재함이나 등화장치, 소음기 등을 임의로 개조하여 소위 '불법튜닝' 상태로 운영됨으로써 식별이 어렵거나 주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차량은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승인받아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간 공단에서는 도로 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하여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해 왔으나,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적발차량 위반내용 통지 및 행정처분 의뢰를 공문으로 하다 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업무처리에 추가적인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원의 위반차량 단속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안전 신문고 앱(App)을 활용함으로써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행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산정보를 안전신문고 시스템과 연계시켜 신고내용에 표기된 차량번호 등록지역의 지자체 또는 경찰청으로 적발된 내용이 자동으로 이송되고, 처분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구축하였다.

7월 1일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적발된 차량을 신고하면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처리기간이 1개월에서 1 ~ 2주로 단축되어 불법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도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신문고 시스템에 구축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신고 및 자동이송 기능의 운영 결과를 종합분석한 후 신고 분야와 참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분류·이송 업무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원은 공단의 자동차 전문가 중 선발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자동차관리법(제73조의2)에 따라 운행 자동차의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약 1만 7천여 건의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개조) 사례를 적발하였다.

행정안전부 김기영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문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속히 시정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에서 편안하게 운전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구조·장치를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튜닝하는 등 불법운행 자동차를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이륜차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과 같은 자동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튜닝을 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정부/기자

전북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라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30일 산림 내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상업행위 시설물 설치,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림보호 계도·단속을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입간판 설치, 현수막 게첨 등 단속계획을 알리는 한편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강화와 함께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등 계도 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계도·단속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 산간 계곡, 도내 명산, 자연휴양림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이며,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 예방과 발생 쓰레기 되가져가기 홍보 활동도 시행한다.

주요 계곡, 등산로 입구 등에 청원 산림보호직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계도·단속 활동을 하고, 도내 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휴양객들에게 산림환경 보전의 중요성 등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내가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실천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등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름다운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한 건전한 질서 확립과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구미시,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 실시

구미시는 지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경북도, 김천시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관리 취약시기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전 차단과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경상북도·김천시·서부환경기술인협회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미, 김천시에 소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4개소(구미 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및 대기 자가측정 이행상태 등 환경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배출업소 9개소를 점검한 결과, 6개 업체에서 총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변경신고 미이행 5건, 배출시설 운영상황 기록보존 미이행 1건, 운영일지 거짓작성 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운영이 미흡한 업체는 추후 오염물질 시료 분석, 민·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며, 영세 사업장에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와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하여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기 전 자체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폐수 등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향후에도 첨단 장비(측정차량, 드론)를 활용한 감시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안동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동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동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읍면동 합동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일 안동시에 따르면 단속은 ▲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 불법 취사 ▲ 오물·쓰레기 투기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15일까지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불법행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중 처리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시흥갯골축제, 7월 1일부터 4개월간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시흥시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갯골의 4계절과 소금, 갈대, 바람 등 갯골의 4가지 주요 생태테마를 소재로 한 시흥갯골축제를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한다.

올해 시흥갯골축제는 지속되는 코로나 19 속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기획됐다.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속에서 시흥갯골축제는 경기도 최초로 온라인 랜선축제로 선도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며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축제모델을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역시 수도권일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소규모 현장 프로그램만으로 축제를 구성했다.

올해 갯골축제는 코로나 블루로 지친 모두의 마음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갯골에서 안부를 묻다, 갯골에게 안부를 묻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이는 축제장의 역할을 하는 갯골생태공원의 현장성, 갯골을 대면했던 코로나 이전의 삶을 그리는 의미에서 갯골의 안부를 묻고,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진 사람 간 관계, 거리두기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다는 의미로 재해석된다.

시는 사전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한국축제감독회의와 공동주최한 갯골축제포럼(주제:코로나 시대 축제를 준비하는 600분 포럼)을 통해 축제의 추진방향에 대해 모두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5월에는 열린 관광지이자 축제장인 갯골생태공원에서의 무장애 축제를 기획하고 고민해보고자 '누구나 불편함없는 축제와 여행'이라는 주제로 갯골축제학교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시흥갯골축제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개최된다. 시민과 일반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과 소규모 현장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7월은 소금과 염전, 8월 새와 저서동물, 9월 꽃과 염생식물, 10월 바람과 갈대를 주제로 매달 첫 주에 사전모집을 진행하며, 셋째 주에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월별 주제에 따른 개인의 창작시를 오디오 북으로 제작해주는 갯골창작문예, 줌(zoom)으로 갯골관련 퀴즈를 함께 맞춰보는 갯골든벨, 작년 성황리에 이슈몰이를 했던 갯골 체험키트와 갯골아트상품을 만나 볼 수 있는 갯골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월 다른 테마로 찾아갈 계획이다.

현장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갯골야행은 갯골 탐방 배낭을 메고 생태습지로 떠나는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터파크를 통해 사전예약한 팀에 한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갯골생태공원의 한켠에서 풍경과 함께 어르신들의 추억을 담아드리는 갯골청춘사진관은 성별, 사회·경제적 격차없이 누구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참여자의 폭을 넓혔다.

또한, 지난해 아쉽게 취소됐던 시흥갯골축제의 대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인 '시흥댄서래퍼싱어'는 올해 틱톡(TicToc ver.)을 통해 비대면으로 찾아온다.

청소년들이 즐겨쓰는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MZ세대의 트렌드를 한껏 반영했다. 춤과 노래, 랩 등 끼 많은 시흥시 청소년들이 마음껏 흥을 발산하고 축제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계없이 서로 갯골이라는 콘텐츠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갯골의 현장을 알고 방문을 해야 온라인 프로그램을 원활히 참여할 수 있고,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갯골을 대면하는 현장성을 가미했다.

이선현 시흥시 관광축제팀장은 "백신 접종 비율이 높아지고, 하반기 거리두기 개편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상황이 나아진다면 예전처럼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선제적으로 갯골을 마주하며 작은 규모로 현장축제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 다양하게 구성된 축제 프로그램으로 힐링하며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을 함께 기다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화성시문화재단 '2021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참가신청 접수 시작!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이 주최하는 '2021 라이징스타를 찾아라'가 공연단체 및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7월 1일 참가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든다.

'라이징스타를 찾아라'는 실력 있는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밴드 경연대회로 공연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18년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다.

온라인을 통해 열정적이고 긴장 넘치는 본선 및 결선 경연무대를 실시간 중계하고,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응원하는 팀에 투표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선택한 올해의 '라이징스타'가 탄생하게 된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는 올해 더욱 특별하고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 라이징스타 특집 TV 공개방송 편성을 시작으로 라디오 방송 출연 및 음원 송출, 뮤직비디오 제작, 국내 및 해외 페스티벌 출연 기회 제공 등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으로 찾아올 예정이다.

'2021 라이징스타를 찾아라'의 참가 접수는 1일부터 2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자작곡을 보유하고 있고 △라이브 공연이 가능한 팀이라면 장르를 불문하고 지원이 가능하다.

예선에서 전문가의 서면 및 영상 심사를 통해 선발된 본선 진출 10팀은, 오는 8월 4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본선 실연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본선 경연은 8월 내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가 이뤄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 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본선 경연 진출자들이 참여하는 화성시 공영버스 홍보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수도권 최초로 시가 화성도시공사를 통해 버스를 직접 운행하는 화성시 공영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까지도 시민 요구에 맞춰 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은 직접 뽑은 '라이징스타'가 소개하는 화성시의 명소들을 버스노선으로 따라가 볼 수 있어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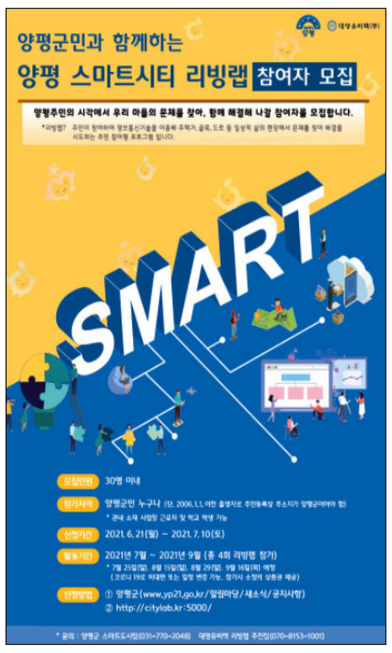
대망의 결선 경연은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라 야외 또는 실내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 및 빵야TV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결선 경연 및 참가 접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2021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2021 라이징스타를 찾아라'를 통해 빛나는 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양평군, '양평스마트시티 리빙랩' 참여자 모집



양평군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해 양평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Living Lab)에 참여할 양평군 주민을 모집 중이다.

리빙랩은 '일상 생활 속 실험실'이란 뜻으로 주민 주도로 일상의 문제점을 찾아 ICT(정보 통신 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을 활용해 주택가, 골목, 재래시장, 도로 등 모든 삶의 현장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주민 주도형 혁신 모델을 말한다.

양평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솔루션 실증을 통해 우리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로 리빙랩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30명의 주민을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2006년 1월 1일 이전 출생 양평 주민(소재지 사업장 근무자 및 학교 학생을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안전한 도시 ▲교통문제 해결 ▲관광도시 도약 ▲사회적 약자문제 ▲어린이 안전 문제 등 우리 생활속의 도시문제를 협의해 함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정된 군민은 9월까지 총 4번의 회의를 통해 지역문제 발굴, 서비스 기획, 스마트 서비스 제시 및 검증을 통한 성과 발표 등을 수행하게 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홈페이지 및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리빙랩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이성율/기자

광명소방서, 제22대 최 준 서장 취임

2021년 7월 1일 광명소방서 제22대 서장으로 최 준(50. 사진) 前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대응과 대응과장이 취임했다.

최 준 신임 광명소방서장은 2001년 소방간부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재난상황실, 경기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경기도소방학교 교수운영과 현장교육담당, 안성소방서 현장지휘과 현장지휘과장,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정보통신팀장 등을 역임하고 7월 1일 자로 제22대 광명소방서장으로 취임했다.

전산계산학을 전공한 신임 최 준 서장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업무추진과 주요 요직을 거치며 소방조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정보통신 팀장으로 전공을 살려 다양한 실무와 경험으로 업무기획 및 현장지휘 능력 등 리더십을 모두 갖춘 지휘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그동안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 광명시민의 안전을 책임져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 준 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재난에 강한 소방서를 만들고,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광명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순희/기자

안산시, 오늘부터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안산시가 관내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약 2만2천명을 대상으로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안산시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날 또는 신청일 안산시 주민등록 된 만 11~18세 여성청소년(2003년~2010년 출생)이며, 여성가족부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시는 이번 보편지원 사업으로 약 2만2천명의 여성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기도 내 14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여성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은 정기신청 기간인 이달 14일까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7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수시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올 12월10일까지로,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접수 후 2주일 이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자는 연간 13만8천 원을 지급받지만, 사업이 첫 시행되는 올해는 반기에 대한 6만9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가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인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하면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안산시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청소년 친화도시 안산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양주시, 공원일몰제 적용 백석읍 근린공원 17 조성공사'순항'

양주시가 공원일몰제로 실효 위기에 처했던 백석읍 근린공원17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원일몰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용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백석읍 근린공원 17은 지난 1974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돼 공원일몰제 적용으로 실효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타당성 조사와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을 완료했다.

시는 총사업비 120여억원을 투입, 백석읍 오산리 564-2번지 일원에 연면적 57,118㎡ 규모로 오는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산림 군락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공간계획으로 공원 내 기존 산책로와 주변 동선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광장, 마당 등을 조성,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새롭고 특별한 숲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숲에서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꽃향기원, 억새원, 야생초화원, 숲힐링원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 주변 학교와 연계해 공원 내에서 야외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 시설결정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과 완충녹지 보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원일몰제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수립한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원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며 "장기미집행 공원과 녹지공간의 지역별 균형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화된 공원·녹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님비 딛고 상생협력의 새장 열었다

총 1,714억원 투입돼, 매송면 숙곡리 일원에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8실, 봉안시설 2만6514기, 자연장지 2만5300기 조성

화성시가 오랜 산고를 끝내고 30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개원식을 열었다. 지난 2011년 7월, 사업을 시작한 지 꼭 10년 만이다.

턱없이 부족한 화장시설의 공백을 메꾸고 시민들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함백산추모공원은 애초에 주민 공모를 통해 님비시설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며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전국 최초로 화성시를 포함해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총 6개 시가 공동추진하면서 지방자치 상생협력의 모델을 보여줬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 부지 301,146㎡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3개동을 포함,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8실, 자연장지 2만 5,300기, 봉안시설 2만 6,514기를 갖춘 종합장사시설로 조성됐다.

총 사업비는 1,714억 원이 투입됐으며, 참여 시의 인구 비율에 따라 분담했다.

화장시설 사용료는 6개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은 16만 원, 그 외 관외 거주자는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화장, 봉안,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은 6개 지자체가, 자연장지는 화성시가, 공원 내 식당과 매점, 장례식장은 숙곡1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맡았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혜택을 유치지역 주민과 참여 지자체들이 투명하게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 관내·외빈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경과보고, 개원사 및 축사, 개원 세레모니,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 서남부권 383만 시민들은 이제 화장장을 찾아 원정화장을 떠나거나 순위에 밀려 4일장을 지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과 지자체 간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발판삼아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는 7월 한 달간 회차 당 4개 화로로 축소 운영되며, 장례식장은 오는 10월부터, 수목장은 22년 7월 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김남주/기자

안양시 동안청소년수련관 이석구 관장, 대한민국 혁신리더 표창장 수상

안양시동안청소년수련관 이석구 관장이 안양시 청소년들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혁신리더 표창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시상은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개최된 2021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에 앞장선 각 분야의 리더 43명을 대상으로 한 시상으로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장상을 수상 했다.

이석구 관장은 안양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및 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연계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청소년과 함께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 왔다.

또한, 안양시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공공복지 증진으로 지난 5월 '2021년 대한민국 대통령 단체표창'에 이어 받는 표창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석구 관장은 "이번 수상은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 수상에 힘입어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 및 활동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종균/기자

(재)광명시청소년재단과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업무협약 및 소통의 장 마련

(재)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은 6월 29일 10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된 사회를 위해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회장 박미정)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은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서일동)과 산하시설인 광명시청소년수련관, 해냄청소년활동센터, 오름청소년활동센터, 디딤청소년활동센터, 광명시청소년진로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여 각 청소년시설에서 장애 청소년 및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장애 청소년 및 청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주체적으로 꿈을 키워나가고, 청소년의 활동 및 진로체험을 통해 주도적인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안전해 캠페인]을 릴레이로 진행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청소년 폭력예방, 안전한 미디어 환경 구축 등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박미정 회장은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현장실습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식 개선 사절단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청소년재단 서일동 대표이사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청소년에게 행복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업무협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전순희/기자

파주도시관광공사, 2021 현장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1 현장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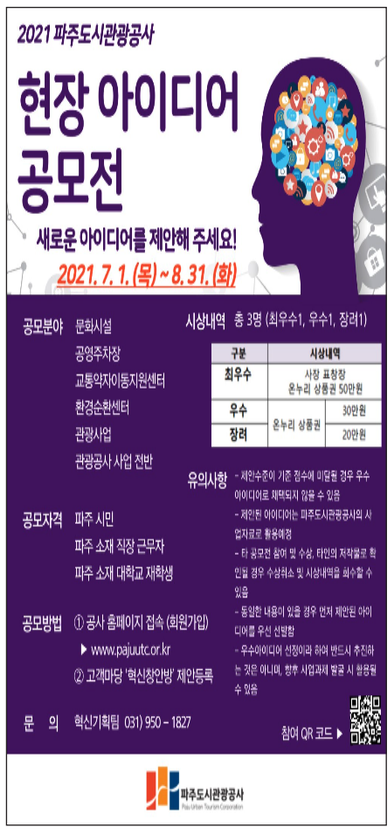
공모전에서는 문화시설, 공영주차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환경순환센터, 관광사업 등 공사 소관 업무 및 운영 시설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는다.

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 혁신창안방)에서 접수 가능하며 공모 자격은 파주 시민과 파주 소재 직장인 및 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최대 3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최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게는 사장 표창과 함께 상금(온누리상품권 5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손혁재 사장은 "파주 시정과 밀접한 공사 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의 참여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공모전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사 사업 전반에 접목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2021년 상반기 청소년전화1388 친절도 전국 1위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송영완)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23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청소년전화1388 운영기관 모니터링 평가'에서 100점 만점으로 전국 공동 1위를 달성하였다.

청소년전화1388 운영기관 모니터링 평가는 연간 상 · 하반기 2회 실시되며 전화상담 수신의 신속성, 상담 응대 태도와 친절도, 상담에 대한 적극성 등 총 10개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재단 관계자는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의 최초 접근 통로인 청소년전화1388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 할 것이며, 청소년전화1388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과 보호자들이 상담을 적극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내방 및 사이버 상담, 전화를 통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다.

최정근/기자

학교 관리자의 독도 영토주권 수호 의지 다짐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2021년 6월 30일 봉화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21명을 대상으로 울진 구산항 일원에서 수토사문화전시관과 독도모형 조형물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2021 학교 관리자 나라사랑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 실효적으로 우리 영토인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이 올림픽 행사를 앞두고 자국 영토로 표시하는 반역사적·반국제법적 행태와 올림픽을 정치 도구화하는 일본에 대한 규탄을 위해 울진 구산항 일원에서 독도수호 의식 및 나라사랑 다짐 대회 순으로 진행했다.

봉화교육지원청은 지금까지의 독도교육을 심화 확대해 경상북도교육청사이버독도학교 수강, 독도교육올림픽 참가, 독도수호 결의대회 등으로 독도수호 의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학생활동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박세락 교육장은 "나라의 보물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선 학교 관리자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나라사랑 및 독도수호 행사를 통한 실천적 교육으로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포항시는 지난 2월 준공한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를 임시운영기간을 거쳐 7월부터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한다고 밝혔다.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는 포항지진을 계기로 대두된 방재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 25.5억 원을 포함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연면적 1,742㎡, 지상 2층 규모이다.

재난 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내진특급 성능이 확보된 시설로 태양광 및 자체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어 3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실내구호소(다목적체육관)와 급식실, 심리치료실, 물품보관창고,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야외 테라스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건립됐다.

다목적재난구호소 운영 수탁자인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은 지난 18일 '소비자중심경영(CCM)' 선포식을 갖고 고객 중심 경영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이 다년간의 시설 위탁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목적재난구호소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고객중심 공감경영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주거안정과장은 "배드민턴, 농구 등 생활체육 여가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피로감을 덜어 주고 활력을 불어 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난구호소 위탁운영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김학동 예천군수, 민선7기 취임 3주년 군정성과 추진계획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군정목표로 힘차게 달려온 민선7기 김학동 예천군수가 취임 3주년을 맞이한다.

김 군수는 평소 "변화와 도전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오며 과거 관행에서 탈피한 능동적인 행정으로 새바람을 일으켜 왔으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군정역량을 한데 모아 코로나19등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열정을 쏟아 부었다.

【취임 3주년 성과】

군 단위 최초로 국제대회인 2020 아시아U20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어 국제적인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대한육상연맹의 육상교육훈련센터 유치는 연간 약 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전선지중화, 간판정비,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살기 좋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 주민자치센터 개소, 도시공원 조성,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교육소외지구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미래교육지구사업 지정 등을 통해 명품교육 1번지 예천을 만드는데 공을 들여 2021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등 명문대 합격생을 다수 포함한 관내 3개교 졸업생 290명 중 95.9%인 278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한 결과를 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는 유례없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총 2000억 이상의 예산 확보로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시설 현대화, 예천한우 브랜드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왔다.

아울러 지난해 중앙 및 경북도로부터 40개 분야에서 우수한 수상실적을 거두었고, 올해는 음식 문화개선사업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지방자치단체 최고상인 국무총리 표창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최우상 등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향후 추진계획】

▷코로나19 철저한 대응 및 지역경기 활성화 집중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적으로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안전을 지키고, 정부의 백신접종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접종을 마무리하여 조기에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인들에게 30억 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사업, 경영안정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지방세 감면, 간판제작 설치비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천사랑상품권 180억 원을 발행해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와 관광업계에 건전경영 지원사업, 긴급생계안정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내 고용 촉진과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공공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 등 에도 힘쓸 예정이다.

▷예천읍 원도심 신경제 중심지로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선지중화사업, 주차난 해소, 도시미관개선사업 등에 속도를 더한다.

△예천읍 노하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역사문화전시관, 청년회관을 건립 △남본지구 고추마늘 온라인 판매시설 △동본지구 예천한우 실비체험센터, 복합공영주차장 △서본지구 장난감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등을 건립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된 전선지중화사업은 총 3.2km 구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해 지역경기 활성화을 유도하고 노후 된 상가간판을 정비해 도심경관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한천과 남산공원, 개심사지오층석탑공원, 폐철도부지를 적극 개발하고 박서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여 원도심의 관광 허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명품 도청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신도시 주민들에게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복합커뮤니티센터』를 2022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1단계 신도시 조성 시 나타난 문제점인 학교, 의료, 교통, 여가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들은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보완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해 갈 예정이다.

▷농·축산업 현대화 및 유통구조 개선, 풍요로운 부자농촌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농림 분야 예산이 1,058억 원까지 증액돼 예천군 전체 예산 18.73%를 차지하게 됐다.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축산물 브랜드화를 적극 지원하고 6차산업화와 유통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펼친 결과 지역 농·특산물 2,192만 달러(한화 263억 원)어치가 수출됐으며, 신선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수출 농가를 육성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으로 농촌사회에 활력을 더한다.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준비 차곡차곡

2022 예천아시아 U20 육상선수권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종합기본계획 수립, 조직위와 자원봉사단체 업무협약을 체결 했으며 자원봉사자 모집, 대회 분야별 세부실행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53억 원 사업비로 대회 개최에 필요한 기술정보센터, 도핑검사실 등 기능실을 확보할 계획이며 2022년 4월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의 육상 지도자와 선수, 심판 등이 참여해 △체계적인 육상전문 지도자교육과 심판 양성 및 교육 △외국지도자 강습교육 △선수 경기력 향상과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195억 원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6,000㎡ 규모로 2023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육상교육센터를 찾는 육상관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맞춤형 복지 실현 및 군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어르신들이 노후생활 보장및 장애인·저소득층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확충해 출산에서 양육까지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난 3년은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예천군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시기였다면 남은 1년은 '경북의 중심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민들과 적극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에 주체가 되어 주시고 예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관심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고령군, 주민과의 행복한 소통과 아름다운 동행 추진

곽용환 고령군수는 민선7기 3주년을 맞이하여 별도의 기념식이 아닌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운행하며, 행정 최일선의 현장을 직접 뛰고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운행은 저상슬로프가 장착된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쌍림면과 우곡면의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안전한 승하차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였다.

곽용환 군수는 소감을 통해 참으로 오랜만에 행정 최일선에 임해보니, 40년 전 말단 공직의 추억이 새삼 떠오르며 주민들의 삶 속 깊숙이 뻗어있는 행정의 발전을 실감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 노약자 등이 마음 놓고 이동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현실을 절실히 느꼈고 약자를 위한 행정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우선 과제임을 각인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남은 1년의 임기동안 더 현장 가까이로 나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난 민선5기부터 오늘 민선7기 3주년까지 11년간의 시간을 잘 마무리 하고, 다음 민선8기의 고령군 행정이 더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쉼 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고령군은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4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320여명의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연간 3,000회 정도 이용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김세기/기자

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서 접수

대구소방안전본부는 7월 한 달 동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정착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대구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할 소방서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표된다.

신청 조건은 ▲ 최근 3년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는 경우 ▲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간 그 기록을 보관 등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우병욱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안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울산시,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하세요"

9월말까지 태화강 수상계류장 · 진하해수욕장 일원

울산시는 태화강 수상계류장(한국해양소년단울산연맹)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울주군윈드서핑협회) 일원에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7월부터 9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은 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및 관광객 등에게 다양한 해양레저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해 해양레저 활성화와 해양관광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체험교실은 윈드서핑, 딩기요트 등 다양한 종목으로 이론 및 안전교육, 장비사용법, 실전연습 등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태화강 체험교실에서는 7월 3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주말(토·일요일)마다 윈드서핑과 카누, 딩기요트, 스킨스쿠버 등 5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다.

교육은 윈드서핑(7월 3일 ~ 8월 1일, 10회), 카누&카약(7월 3일 ~ 8월 1일, 10회), 딩기요트(8월 7일 ~ 8월 21일, 5회), 스킨스쿠버(9월 19일 ~ 9월 20일, 2회) 등 총 27회에 걸쳐 7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진하해수욕장 체험교실은 윈드서핑, 서핑, 딩기요트, 패들보드(SUP) 등 4개 종목이 운영되며 7월 1부터 ~ 8월 27까지 휴일 없이 매일 4회(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운영한다.

이번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예약 접수제로 진행한다. 회당 10 ~ 20명의 소수인원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문의(예약,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소년단 울산연맹(227-2582)과 울주군 윈드서핑협회(239-8469)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체험교실을 통해 코로나 19로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해양레저스포츠의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부산시, 새 시정에 바라는 시민의 메시지는 '시민 삶의 질 향상'

부산시, 4.26.~5.15.(20일간) 진행한 새 시정에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 청취 결과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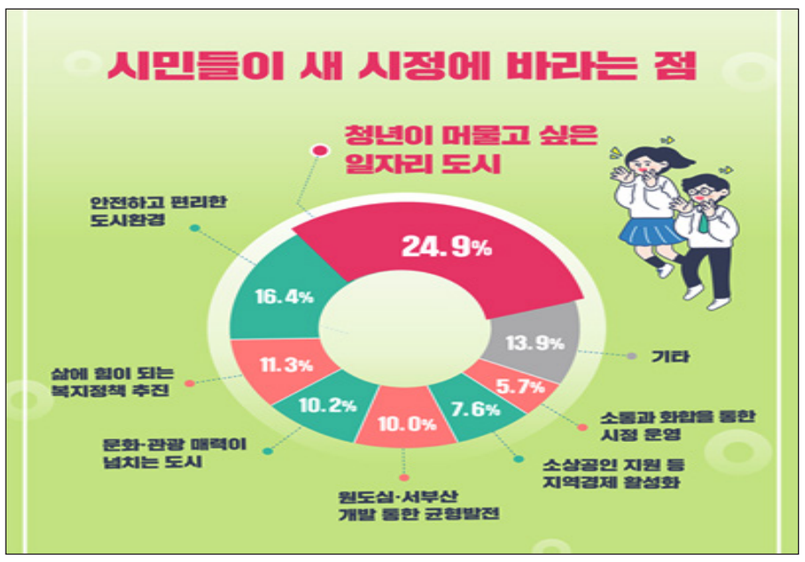
부산시민이 새 시정에 가장 바라는 것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새로운 시정의 출발을 맞아 시민에게 힘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 전파를 위해 진행한 '새 시정에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 시민토론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시민토론은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며, 시민 1,141명이 참여하여 1,200건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다. 특히, 제시된 의견에 745,167건의 공감 클릭으로 시민참여가 이루어져 새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드러났다.

의견수렴 결과 시민들이 새 시정에 바라는 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24.9%), 도시환경 개선(16.4%), 출산·육아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11.3%)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의견이 높게 나왔다.

특히,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풍부하고, 주택가격 안정 및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며, 양질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희망했다.



이 외에도 문화·관광(10.2%), 도시 균형발전(10.0%), 지역경제 활성화(7.6%), 소통·화합 통한 시정 운영(5.7%), 기타(13.9%)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토론을 통해 새 시정에 힘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함양군, 달빛내륙철도 정부계획안 최종 확정 '환영'

대구~광주 1시간대 연결 명실상부 남부내륙 교통 중심지, 유통·물류 중심도시 전환 가속

함양군이 대구~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정부계획안에 최종 반영되자 이를 크게 환영하며 유통 물류의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정부계획안에 최종 확정됐다. 앞선 지난 4월 28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는 총연장 199km에 이르며 총사업비 4조 5,000여 억원이 소요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10개 시군(대구-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을 경유하여 대구~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게 된다.

오는 7월경 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확보, 설계 및 시공 순으로 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며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이다.

그동안 함양군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조기건설을 위해 인근 시군과

보조를 맞춰, 군민 의견서 전달, 공동선언문 발표, 경유 지자체간 협의회 개최, 국회포럼 참석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달빛내륙철도 최종 확정 소식을 접한 함양군민들은 이번 정부 결정에 크게 환영하며 경유지역간 화합과 소통의 공동체 형성과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전-통영 고속도로, 광주-대구 고속도로와 함께 현재 건설 중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에 이어 달빛내륙철도까지 지나는 남부내륙 교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도 정부의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며 • 달빛고속철도가 완공되면 함양군은 명실상부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으로 유통과 물류 중심도시로의 전환촉진이 가속화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사천바다케이블카와 함께하는 여름퀴즈 '케이블카 사용법' 실시

당첨자 40명에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교환권 증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사천바다케이블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을 알리기 위한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사천바다케이블카와 함께하는 여름퀴즈! 케이블카 사용법'이라는 SNS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시설관리공단의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해당 내용을 공유한 뒤 이벤트 게시물에 퀴즈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벤트 댓글에 친구 태그를 많이 할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시설관리공단은 댓글내용과 기타 준수사항을 평가한 후 당첨자 40명에게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사천바다케이블카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거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홍보마케팅팀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정 이사장은 "시원한 남해안 비경을 하늘을 날으며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하고 이색적인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사천바다케이블카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여름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합천군, 2021 합천관광 브이로그 공모전 개최

합천군은 합천과 영상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1 합천관광 브이로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영상 공모전을 통하여 합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트렌드에 맞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콘텐츠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 그린(Green) 합천 여행'이라는 주제로 관광과 환경을 접목시켜 합천의 청정, 힐링, 웰니스 관광을 담았다. 1회용품 안 쓰기, 쓰레기 줍기 등 환경보호가 함께하는 여행기,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생태관광, 나만 알고 싶은 숨은 합천 여행지를 찾아 내가 그리는 여행 등 지원자들의 재기 넘치는 이야기를 기다린다.

공모전은 온라인으로 접수 받고 있으며, 3분 내외의 영상을 개별 유튜브에 업로드 후 공모전 홈페이지(GreenHCcontest.com)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원본파일과 1분 가량의 요약본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대상 1점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고, 최우수 1점에 400만원, 우수 2점에 각 300만원, 장려 3점에 각 100만원, 입선 10점에 각 20만원으로 총 2천만원의 시상금이 상장과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새로운 영상 콘텐츠 발굴을 위한 공모전인 만큼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되기를 바란다."며, "합천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참여해 합천관광 향상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광용/기자

임란 의병도대장 김면 장군 사료 거창박물관에 기탁

거창군 웅양면에 거주하는 김면 장군 후손 김양호(72세)씨는 그동안 미공개로 소장하고 있던 사료 13점을 거창박물관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문화재는 임진왜란(1592) 때 거창군 웅양면 우척현〈우두령〉 전투에서 크게 활약한 의병도대장 김면(金沔, 호는 松庵, 1541~1593) 장군 관련 사료들로, 그 당시 기록을 모은 문집인 『松庵先生文集송암선생문집』, 임진년과 다음 해 임명 교지, 영호남 및 충청도 유림들이 공적을 올린 상서(上書: 임금에게 올리는 글), 그 외 임진란 당시 사료들 13점으로 희소성과 역사성을 지닌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다.

기탁자 김양호 후손은 "그동안 선대의 사료들을 물려받아 보존해 왔으나 이제 개인이 소장하기보다는 박물관에 전시하여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학술자료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박물관에는 거창 임진왜란 관련 지역 참모장이었던 모계 문위(1554~1631), 영호 윤경남(1556~1614) 선생 유품만 전시되어 있으며, 총사령관인 김면 장군 사료가 없어 그동안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기탁자료를 중심으로 전시물을 새롭게 보강하여 국난을 당했을 때 의연히 나라를 지킨 선조들의 정신을 잘 이어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거창박물관에서는 기탁자료에 대해 자료집 발간과 아울러 특별전시 코너를 마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역사(地域史) 관련 사료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부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미디어공모전 개최

부산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1년 부산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미디어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센터의 긍정적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지 콘텐츠와 영상(음원) 콘텐츠 부문으로 나뉘며,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미지 부문은 카드뉴스, 사진, 포스터, 그림, 웹툰 등이고, ▲영상(음원) 부문은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스톱모션, 인터뷰,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UCC 등이다.

9월 중순 접수된 작품에 대한 서류심사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10명이 선정되며, 이들에게는 각각 상장과 상금(5~50만 원)이 지급된다. 심사결과는 9월 말 부산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선정된 작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출서류, 공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꿈드림 공식 홈페이지 '꿈드림 소식'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꿈드림 센터 이용 경험과 서비스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에는 구·군별로 총 17개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센터에서는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통영시, "통영 탄소중립 시민이 나선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민 2050명 서약을 목표로 탄소중립 서약 참여 시민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경제 질서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맞춰 기후위기에 맞선 시민의 인식과 실천을 확산하고 지역의 민간역량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탄소중립 거버넌스(협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캠페인은 시민 2050명의 서약을 받는 프로그램과 함께 2050 통영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연석회의를 거쳐 8월 15일 '2050 통영 탄소독립 선언식'을 통해 시민의 열기를 담을 계획이다.

구글폼을 통해 시민참여가 가능하며 기관 및 단체는 별도의 서약서와 직원의 지문이 담긴 지문트리를 만들어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탄소중립 서명 캠페인은 '통영 탄소독립군'이란 명칭으로 서명운동과 함께 참여하는 시민에게 여러 미션을 제안하고 설문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영훈/기자

광주광역시, 동서화합 20년 숙원!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확정

29일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서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광주광역시는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노력이 시작된 지 20여년 만에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는 29일 열린 회의에서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심의해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을 담은 정부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4월22일 정부공청회를 통한 향후 10년간의 전국 철도망 건설 구상을 담은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정부안 발표에 달빛내륙철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즉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비서실장 등을 만나 이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으로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후 이 시장과 권 시장은 4월28일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6개 시도지사 공동의 대통령 건의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6개 영호남 광역자치단체 공동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들도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힘을 모았고, 영호남 시도의회와 시민단체, 언론들도 하나같이 사업의 필요성을 연일 호소했다.

특히 이용섭 시장은 정부계획안이 발표된 지난 4월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야 정당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이 사업을 간곡히 건의하고 수시로 주요 인사들에게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하면서 사실상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 상황실장' 역할을 했다.

정부의 당초 계획안 발표 직후만 해도 달빛내륙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에 대해 교통전문가들과 부처 관계관들은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고 사업비가 4조원이 넘는 큰 규모여서 최종계획 반영 전망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 각계각층의 일치된 노력으로 20여년간 넘지 못한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큰 문턱을 통과하게 됐다.

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됨으로써 이 사업이 완공되면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광주~대구간 1시간대 고속철도 연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서화합과 남부내륙경제권 형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로 한 시간대에 영호남 시도민이 왕래하고 양 지역의 산업과 물류, 정보와 문화관광이 교류하는 시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는 당초 계획의 초안에 누락된 달빛내륙철도가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되게 된 성공 요인으로 ① 광주시장과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한 달빛동맹의 주도적 노력 ②영호·남 6개 시·도의 연대와 협력 ③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명분 부각 ④정치권 등 영·호남 각계각층의 단합된 대응 등을 꼽았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달빛동맹 역사상 가장 큰 산맥을 넘었다. 달빛내륙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광주시민과 영호·남 시·도민, 정부 관계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달빛내륙철도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잇는 노선길이 198.8㎞, 4조515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광주, 전남(담양), 전북(순창, 남원, 장수), 경남(함양, 거창, 합천(해인사)), 경북(고령), 대구 등 6개의 광역지자체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철도건설사업이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다음달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거쳐 공식 확정될 예정이며,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이번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다.

달빛내륙철도를 비롯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예산확보, 설계 및 시공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김덕윤/기자

김영록 지사, 청년과 맞춤형 정책 해법 찾기

29일 온오프라인 대화…"손에 잡히는 청년정책 만들 것" 약속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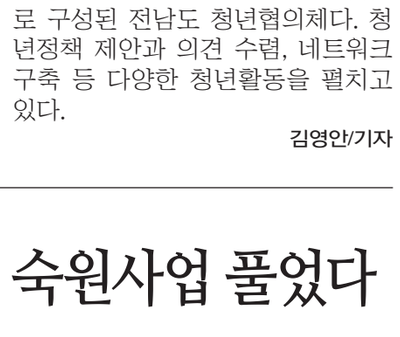
'청년의 열정에 화답하다'라는 주제로 전남도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청년 3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김광민 '청년의 목소리'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과 청년 15명이 도청 서재필실에서 함께 했고, 청년회원 20명은 영상으로 참여했다. 많은 청년과 관심 있는 도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으뜸전남튜브'로 생중계했다.

코로나19 이후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어 아쉬워하던 청년들은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문화, 복지 등 청년정책 현안에 대해 김 지사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청년창업 지원기간 확대, 청년소농 지원대책 마련, 농촌지역의 문화 향유기회 증진, 안정된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 등 다채로운 제안들이 이어졌다.

김광민 대표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과 정보를 공유하고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그동안의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복지·문화 혜택을 누리도록 손에 잡히는 청년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는 94개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며 "청년들도 활기차게 활동하고 목소리를 내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하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의 목소리'는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지난해 7월 71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청년협의체다. 청년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청년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안/기자

여수시, 전라선 고속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확정

여수시가 숙원사업으로 오랜 기간 건의해 온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사업이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최종 반영되며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의 미래가 더욱 밝아졌다.

전라선은 지난 2011년 복선전철화 사업을 통해 기존 선로를 개량하여 KTX가 운행하고 있지만 속도가 시속 120㎞/h에 불과하여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서울에서 여수까지 당초 2시간 40분대에서 34분이 단축된 2시간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져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2031년까지 10년간 철도망 구축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수조원의 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철도망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국가사업으로 채택된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사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의 절차로 철도 사업이 진행된다.

여수시를 비롯한 전라선권 지역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강호축 8개 시·도지사 공동건의, 여수·순천·광양 3개 시 행정협의회, 전남·북 7개 시·군 KTX 협의회,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 지역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 등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를 비롯해 전라남북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성과가 드디어 이루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편리한 교통망으로 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우리 지역의 관광과 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사회단체 등과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담양군 철도 77년 숙원사업 풀었다

담양군은 지역민이 77년 동안 염원하던 철도 숙원사업이 해결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며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확정된데 대하여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양철도는 과거 1922년 송정리~광주~담양 간 36.5km의 전남선 구간을 개통해 1일 6회 왕복으로 운영되다가 1944년 폐선 된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광주~대구간 광역철도가 번번이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었다.

담양군과 군의회는 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미반영으로 발표되자 지난 5월 중앙정부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촉구한다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하는 10개지자체장의 공동건의문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됨으로써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목포~광주~담양~대구가 연결돼 산업과 물류 등 문화관광의 교류가 활발해져 향후 경제협력확대로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달빛내륙철도의 신설은 담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앞으로 있을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경유구간 지자체장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홍곤/기자

고흥군,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등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고흥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 등 시급성이 요구된 지역 현안사업 2건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전남 군단위에서는 최대치로 국비를 확보해 군의 재정부담은 덜고 사업 추진 속도는 한층 더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비 확보 성과는 송 군수가 지난 5월 25일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 행정안전부 근무경험과 인맥을 최대로 활용하여 얻어낸 결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교부세의 일종이며, 상·하반기로 나눠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고 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현안사업은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10억원) △반다비(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5억원) 등 2건사업에 15억원이다.

송귀근 군수는 "코로나 19 여파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타 군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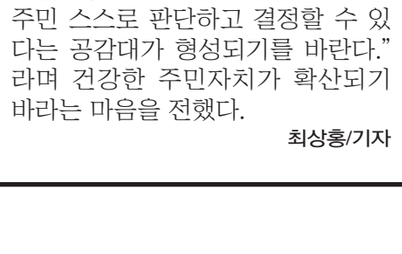
곡성군,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 추진

곡성군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석곡면 소재 31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주제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다뤄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메인 퍼실리데이터, 보조 퍼실리데이터, 제1기 곡성군 주민자치 활동가들로 구성된 4개 팀이 주민들을 도와 워크숍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특히 마을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평일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소규모로 각 마을별 3회, 총 93회에 걸쳐 워크숍을 추진한다.

워크숍 회차별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보면 1회차에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이해, 마을비전 세우기(10년 후 만들고 싶은 마을의 모습)을 진행한다. 2회차에는 마을 실천과제 찾기, 마을의제 발굴, 활동계획서 작성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해결력을 함양한다. 그리고 3회차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지킬 수 있는 향약을 만들고, 그동안 워크숍을 통해 찾은 마을의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곡성군은 이번 워크숍에서 올해 처음으로 위촉된 제1기 곡성군 풀뿌리 주민자치활동가 5명이 보조 활동가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도 의의를 두고 있다. 지역민이 주민자치 활동가로 성장해나가는 시작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위해 곡성군은 지난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석곡면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협의회, 기관장협의회, 31개 마을이장, 부녀회, 청년회, 도시재생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또한 효과적인 워크숍 운영을 위해 워크숍 전에 민문식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과 워크숍 강사진의 만남을 주선해 주민자치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아이부터 고령자까지 누구나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을 공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라며 건강한 주민자치가 확산되기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최상홍/기자

함평군, 제1·2금고 NH농협은행·광주은행 각각 선정

전남 함평군 제1·2금고를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맡는다.

함평군은 지난 22일 군 금고지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금고 NH농협은행 함평군지부, 제2금고 광주은행 함평지점을 각각 차기 함평군 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회계·법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군과 금고간 협력 사업 추진능력 등 5개 항목 19개 세부항목에 대해 심의·평가하고 총점 순으로 제1·2금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 함평군지부는 함평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맡고 광주은행 함평지점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투자유치기금 등 8개 기금을 관리한다.

선정된 은행은 오는 7월 중 함평군과 금고 약정을 체결한 뒤 2022년 1월 1일부터 금고 업무를 개시, 4년간 군 금고를 관리하게 된다.

조기석/기자

완주군, 민선 7기 3년 성과 '별 다섯 개' 신완주 실현 뜀틀 마련

완주군이 민선 7기 3년차에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과 법정 문화도시 선정 등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신(新)완주 실현의 대도약 뜀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민선 7기 3년차인 작년 7월 이후 올 6월까지 1년 동안 소득과 삶의 질 높은 대한민국 으뜸 자족도시 기틀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과 공동체 문화도시 선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각인,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부상 등 미래 성장을 위한 4대 핵심성과를 일궈냈다.

'수소경제 중심도시 완주'를 위한 성과로는 전국 군 단위 유일한 수소시범도시 선정(2019년 12월)과 전국 최대 규모 완주수소충전소 준공(작년 6월)을 토대로, 올 3월에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유치한 것을 들 수 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의 경우 국내 11개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경쟁 속에서 '민·학·정·관 4각 협치'의 빛나는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올 1월 문체부로부터 선정된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 역시 완주문화재단 설립과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문화 기반 확충 등 꾸준히 준비해온 노력의 결정체라는 분석이다. 완주군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완주형 문화공동체 300개를 발굴·육성할 수 있게 됐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완주'는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글로벌 기업 쿠팡(주), 일진하이솔루스, 에너에버 배터리솔루션, 비나텍 등 17개 기업 7,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낸 게 대표적이다. 완주군은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에도 30개 기업 410억 원대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투자유치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 1만3천 세대의 명품 주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원도심 거점기능 강화, 광역 및 생활권 연계 교통망 확충, 2021년에 역대 최고액인 4,5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전방위적 국가예산 확보 등도 성과로 손꼽혔다.

'주요 분야 5대 성과'로는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모두가 행복한 르네상스 완주 실현 △농민존중 농토피아 구축 △소셜굿즈 2025 플랜 본격화 △군민중심 자치군정 선도 등이 제시됐다.

완주군은 철저한 역학조사와 폭넓은 전수조사로 코로나19 방역의 선제적 대응에 나서 K-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전국 최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완주형 일자리 전략 추진, 백신접종률 선도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 완주군의 백신 접종률은 최근 기준으로 전체 인구(9만 1,126명)의 39%를 돌파하는 등 전국평균보다 10% 포인트 높은 실정이다.

'모두가 행복한 르네상스 완주'의 성과로는 전국 군 단위 최초이자 전국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상위단계 인증 획득, 고령친화 으뜸실버복지 실현, 차별과 소외 없는 완주형 복지시스템 강화, 맞춤형 교통복지 완성 등이 제시했다.

완주군은 또 지난 1년 동안 로컬푸드 지수평가 전국 1위, 전국 유일의 최우수 S등급 확보(작년 11월), 농민

주도형 농정자치 실현, 완주 푸드플랜 본격화 등의 성과를 거두는 등 잘사는 농업농촌, 농민존중의 농토피아를 실현했다고 자평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 1년 동안 신완주 실현을 위한 대도약의 뜀틀 마련을 위해 주력한 결과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 모든 성과가 군민들의 협력과 공감, 협조와 참여를 통해 이뤄진 만큼 향후 군정 방향도 군민 참여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전주시, 사회 초년생들에 금융지식 전수

최근 2030 청년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에 따른 신용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기초 금융지식을 전수하고 나섰다.

시는 29일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활용해 지역 내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재무 설계를 돕는 '금융코칭'을 진행했다.

이번 금융코칭에서는 국민·퇴직·개인연금 등으로 보장되는 연금구조의 특징을 비교하고 연금계좌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법과 효율적인 세제혜택 전략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애주기별 적합한 투자방법을 안내받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개인별 투자 성향과 투자 위험도를 파악해보면서 연금과 투자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재테크 시야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다음 달 13일과 27일에는 전인구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돈의 흐름', '파이어(FIRE)족의 시간관리 비법'을 주제로 금융코칭이 이어진다. 9월과 10월에는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과, 11월에는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부터 코칭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금융코칭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회성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심리코칭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준비했다"면서 "추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좋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에서 확인하거나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송일/기자

전라북도 최훈 행정부지사,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 현장 점검

최훈 행정부지사는 29일 지난해 제방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완주군 성북천과 진안군 진안천 등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장을 찾아 복구현황을 점검하고 일선 시군을 격려했다.

성북천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 제방 등이 유실돼 4.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아 총 사업비 14.7억 원을 투입, 28개 공구 2,075m의 제방 및 호안 등 복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 50%이며, 올해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안천은 진안군 진안읍 소재지를 가로지르는 도심권 하천으로, 지난해 폭우로 4.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국비 12.6억 전액을 지원받아. 12개 공구 811m에 제방 및 호안 복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 70%의 공정률로 올해 8월 완료할 계획이다.

최훈 부지사는 현장을 둘러보며"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하여 지난해와 같은 피해와 아픔이 없도록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철저히 준비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이어"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구간을 보강하고 수방자재를 비치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재해복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현장 관계자에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1,218억 원의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2,054건에 대해 총 사업비 4,231억 원을 투입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까지 1,704건(83%)을 완료했고, 6월말 우기 전까지 1,882건(92%)이 준공될 예정이다.

김송일/기자

진안군 중소기업 4개소 성장사다리사업 대상 선정

진안군 소재 중소기업 4개소(그린파이프, 뉴트롬, 태평주가, 함소아제약)가 '2021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기업' 대상에 선정됐다.

전라북도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미래 전북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핵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총 5단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진안군에서는 그 동안 2019년까지 원광전자, 가온우드 2개소만 지정받았다.

이에 군은 2021년 많은 기업들이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간담회를 갖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관내 기업홍보에 전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정보를 제공할 기업설명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사업을 홍보하고 소규모 간담회를 실시하며 적극적으로 사업 안내를 실시한 결과, 2021년 돋움기업에 그린파이프, 뉴트롬, 태평주가가 선정되었고 선도기업에 함소아제약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돋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 동안, 선도기업은 5년 동안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되고 성장을 통하여 상위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다.

곽동원 농촌활력과장은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진안군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종철.이희철/기자

정읍사회복지관, 만 19~36세 비 구직 청년 구직 지원 '2억원 확보'

정읍사회복지관은 지난 21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비 구직 NEET 청년 지원사업' 기획 사업비 2억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사업비 전달은 정읍사회복지관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인 '비 구직 NEET 청년 지원사업'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3년째 '비 구직 NEET 청년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이번에 전달받은 2억원을 포함해 총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를 재원으로 정읍사회복지관은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통합사례관리와 심리상담, 심리검사, 자격증 취득, 예술치료(기타, 원예 등), 문화활동비, 여행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취업 준비 중인 니트족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정읍사회복지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비 구직 NEET 청년 지원사업은 정읍사회복지관이 적극적인 공모에 나선 성과"라며 "시도 비 구직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니트(NEET)족은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약자로 취업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 무직자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최하은/기자

남원시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편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확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옥천군, 열정으로 달려온 3년… '더 좋은 옥천' 건설 고삐 죈다

역대 최대 171건 공모사업, 3595억원

'더 좋은 옥천'을 군정 목표로 군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닻을 올린 김재종호가 민선7기 3주년을 맞았다.

군민의 행복과 신 성장 동력 확보를 기치로 쉼 없이 달려온 옥천군은 지난해부터 전국을 덮친 코로나19 여파에도 행정서비스, 문화·관광, 복지 등 군정 전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민선7기 들어 옥천군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1건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595억원의 정부예산을 획득하며 군정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또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에도 노력해 2020년 도내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되는 등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탁월한 행정력을 입증 받았다.

'더 좋은 옥천'을 군정목표로 5대 분야 80개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공약이행율 80.8%로 44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36건을 정상추진중이다. 이에 김재종 군수는 202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충북도 유일 2년 연속 우수(A)등급을 받았다.

옥천군은 선제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였다. 지난해 충북 도내 최초로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의 자체 재난극복지원금 51억원을 지급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매주 금요일 일제방역의 날을 운영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섰다. 신속한 역학조사로 확진자 발생이후 추가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했다.

또한, 민선7기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문화, 관광, 체육 등 기반 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에 노력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추진으로 양수리 생활문화체육센터 (158억), 군서 다목적체육관 및 작은 도서관(31억)은 사업이 정상 추진중이며 청성·청산 생활SOC 사업(80억원)은 공모가 진행중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읍면 균형발전과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청호로 인한 각종 규제에도 잘 보전된 환경과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대청호 안터지구가'국가생태관광지역'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고 향수호수길 조성사업(2019년 12월), 옥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준공(2020년 6월)으로 장령산 자연휴양림도 재단장을 마쳤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1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동이면 유채꽃단지 조성, 전통문화체험관 건립(2019년 10월) 등으로 남부권 최대 생태관광도시로 발돋움했다.

군 신청사 건립 추진,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2019년 10월), 옥천읍 전선지중화 사업, 행복주택(청년주택)사업 추진(2018년 10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2018년 12월 선정) 등 살기 좋은 도시기반이 확충되었다.

이와 함께 민선7기 들어 답보상태이던 현안사업도 물꼬를 트며 해결되기 시작했다. 오랜 숙원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사업이 가시화되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대청댐 건설이후 40여 년간 지역발전을 저해하던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한 대청호 정책협의회(2020년 9월)를 운영하고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규제해소를 위한 개선안(41건)을 국회, 환경부, 충북도에 전달하며 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복지 시설 및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그 동안 산재된 복지서비스 수행기관을 한 곳으로 모아 이용자 중심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옥천통합복지센터'를 개소하고 장애인복지관 및 반다비 체육센터 신축,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추진 중에 있다. 전국 군단위 지자체 4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아동, 청소년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자와 주민의 힘을 모아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민선7기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2020년 충북도 사회조사 결과 지역생활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김재종 군수는"민선 7기 출범 3년 동안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행정서비스가 가장 우수한 도시로 자리잡았다"며"앞으로 옥천 미래 위해 그려온 청사진들이 성과를 내고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방역파트너 단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 빈틈 메운다!

7월부터 연말까지, 방역파트너 단체 자율방역사업 본격 시행

도민이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는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의 추진체계인 강원생활방역협의회의 회원 단체(방역파트너 단체)들의 자율방역사업이 7월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7월 1일부터 강원도 등 비수도권 지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최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가 대폭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추진되는 방역파트너 단체의 자율방역사업이 느슨해질 수 있는 도내 방역의 빈틈을 상당히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파트너 단체들은 그들의 활동 영역과 특성이 잘 반영된 다양한 방식의 자율방역사업을 순차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강원도자원봉사센터, 강원도새마을회, 국제라이온스협회 강원지구,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지부 등 도내 주요 사회단체에서는 도민 대상 방역수칙 및 자율방역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다중이용시설 ·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또한, 강원도농어촌민박협회는 여름 휴가철 민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급 및 방역수칙 안내와 함께 예약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메시지 전달을 시행해 나간다.

그리고, 강원발전경제인협회, 강원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강원지회에서는 소관분야 사업장 방역교육과 아울러 도내 중심상권, 전통시장 등 인구밀집 주요지역의 방역소독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강원도회의 청소년 대상 방역 및 구강보건 교육, 숙박업중앙회 강원지회의 도내 숙박업소 코로나 제로화를 위한 방역강화, 강원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방역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 강원도체육회의 도내 개최 체육대회 집중방역 시행 등 코로나 감염 ·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자율방역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와 같은 방역파트너 단체의 자율방역사업이 코로나 확산 차단 및 극복을 위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간영역에서의 자율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박동주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방역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라며, "방역파트너 단체들의 이 시기 자율방역사업 시행이 백신접종 확대와 함께 상승효과로 작용하여 도민 여러분의 일상회복이 앞당겨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홍성군, 삼산 이태중선생 청백비 건립 제막식 개최

숨겨진 역사인물 선양을 통해 공직자의 훌륭한 표상 제시

홍성군은 청렴결백하고 올곧은 삶으로 관리의 훌륭한 표상이 된 삼산 이태중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백비를 세웠다.

호조판서 삼산이태중청백비건립추진위원회와 (사)홍주향토문화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제막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청백비 제막식 ▲내빈 소개 ▲경과보고 ▲홍성군수 인사말씀 ▲종친대표 인사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삼산 이태중 선생은 결성현 삼산리에서 태어나 호조판서를 지냈으며, 특히 영조의 탕평책에 관해 목숨을 걸고 직언하였고, 흑산도·영암·갑산·의주· 진도 등 험지로 수차례 귀양을 가면서도 나라와 백성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관리였다.

군은 이번 삼산 이태중 선생 청백비 건립 제막식과 함께 은하면 목현리 마을 입구에 삼산 이태중 선생 묘소 안내표지석을 건립하여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홍성의 역사인물을 재조명함으로써 공직자들의 훌륭한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9일 홍성읍 옥암리 117번지 녹지구간 내 조선시대 홍주출신 관리 중 유일하게 청백리에 선정된 인물인 삼산 이태중 선생의 청백비 건립 제막식을 개최했다.

김원호/기자

홍천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축제분위기 홍천

용문~홍천 철도 신규 반영을 향한 홍천 군민의 100년 염원이 실현되는 첫 발을 내딛었다.

6월 29일 홍천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용문~홍천 철도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100년 넘는 홍천 군민의 염원인 용문~홍천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철도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군민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철도건설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철도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군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된 용문~홍천 철도는 현재 서울역과 청량리를 지나 경기도 양평군 용문까지 운행되고 있는 경의중앙선에 직결되어 홍천까지 연장 운행하는 광역철도(단선전철)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중심축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철도교통망으로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동희/기자

2021년 제3회 온라인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토론참여자 모집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라는 주제로 「2021년 제3회 온라인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를 7월 20일 개최함에 따라 토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 주제는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회의는 주제발표,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제 사이에는 대전교육 청렴시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대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제와 관련한 교육정책 자료를 참여자와 함께 공유하여 보다 내실있는 토론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또한, 원탁회의 토론에서 도출된 제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한 교육정책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회의내용과 정책 반영 결과는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정하고 청렴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주제에 관심있는 대전시민 누구나 대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1일(일)까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탁회의에 참여한 학부모·시민은 봉사활동 시간을, 공무원은 상시학습 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대전교육청 김덕기 혁신정책과장은 "이번 회의가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강화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천안시, 불당 제5공영주차장 개장

지상2층~5층 공영주차장 136면 마련으로 주차난 해소 기대

천안시는 주차난 해소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당 제5공영주차장'을 개소하고 내달 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영주차장 후보지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조성 계획을 수립했으며, 주차전용건축물을 부분 매입해 시설 보완으로 공영주차장을 마련했다. 불당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은 지상 2층부터 5층, 연면적 4,525㎡, 136면 규모이다.

불당신시가지는 신도시(아산탕정지구) 개발 초기부터 교통 불편 및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공영주차장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공영주차장이 개장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주차문제는 시민 일생생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당 제5공영주차장은 장기주차 방지 및 주차 회전율 등을 고려해 유료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무료, 1시간 600원, 2시간 1,800원 1일 최대 1만 원이다.

김원호/기자

세종시, 소중한 한 표로 살기좋은 보람동 만들어요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주민자치회가 오는 7월 10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올해 첫 보람동 주민총회 홍보에 나섰다.

보람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보람동 상가밀집지역에 주민총회 홍보부스를 설치, 주민총회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주민의견을 직접 들으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만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민투표 참여가 가능해 지난 29일은 세종시교육청을 찾아 보람동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주민투표 동참을 요청했다.

주민총회는 주민이 납부한 주민세를 내년도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직접 결정하는 의견수렴 과정으로, 올해는 비대면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를 통해 보람동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박윤경 주민자치회장은 "비대면으로 주민총회를 진행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지만, 당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해 보람동 주민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영동군, 제25대 이선호 부군수 이임

충북 영동군 이선호 부군수가 이달 30일자로 국악과 과일의 고장 영동군에서의 1년여간의 부단체장직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7월 영동부군수로 발령 받은 이선호 부군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추진력을 발휘하며 영동군정 발전에 한몫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의 군정 목표 아래 지역의 역점사업 및 현안을 직접 챙기고 추진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며 군정 전분야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특히, 정부, 국회, 충북도 등 인적 관계망을 활용해 2021년 본예산 기준 2,024억원의 정부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는 등 지역 발전의 토대를 다졌다.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 영동체육공원 조성, 햇살 가득 다담길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장을 직접 살피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쳤다.

또한, 난계국악단장을 역임하며 코로나19에 맞춘 온라인 국악공연 등으로 군민은 물론, 전 국민들의 코로나블루는 해소에 앞장서는 한편, 전통과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역경제와 군민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가 상당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중앙부처규제 발굴 17건 등 군민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에 동분서주했다.

최근에는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에 맞서, 체계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책 추진 등에 주력했다.

이임식 바로 전날인 29일에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영동군민장학회에 200만원을 기탁하며, 영동에 대한 애정을 대신했다.

이선호 부군수는 "직원들의 든든한 후원과 군민의 응원으로 부군수로서의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살기좋고 아름다운 국악과 과일의 고장 영동에서 근무하며 지역 발전과 군정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영광이었다"라며, "영동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무한한 발전을 응원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선호 부군수는 충북 청원 출신으로 1990년 1월 첫 공직생활을 시작해 충북도청 공보관, 정책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충청북도 남부출장소장,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 등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1일 영동군 부군수로 발령받았다.

최만식/기자

산청군, '착한 천연염색' 산청 '풀꽃누리' 아시나요?

박영진 대표 13년 연구… 173가지 전통색 찾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 산청 남사예담촌을 둘러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전시공간이 있다.

인공 화학약품을 전혀 쓰지 않고 자연이 준 그대로의 재료로 천연염색을 실천하는 공방 '풀꽃누리(대표 박영진·김옥순 부부)'다.

박영진 대표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직접 천연염색 옷을 지어 입으셨던 어머니의 뒤를 따라 2대째 천연염색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박 대표는 1999년 어머니의 권유로 천연염색을 시작, 이후 13년간 화학약품을 전혀 쓰지 않는 천연염색 공부에 매진했다.

'동의보감'은 물론 조선시대 백과사전인 '이수신편' 등 옛 문헌을 찾는 동시에 문헌에 나온 전통 염료의 재료를 찾아 전국을 누볐다고.

그 결과 옛 문헌에서 말하는 '세상의 모든 색' 173가지 색을 전통 천연염색 기법으로 재현해 낼 수 있었다.

천연염색은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지난한 작업이다. 염색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쪽빛 염료 만들기 하나만 해도 전 과정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면 1년을 훌쩍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모든 재료를 자연에서 얻다보니 4계절에 맞춰 재료를 구하고 염료로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든다.

이처럼 고된 일임에도 박영진·김옥순 대표는 지구를 살리는 착한 천연염색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전통을 잇고 있다는 자부심을 마음에 품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1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2013년 (사)한국전통염색협회 전통염색체험 장인 취득, 2017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2018년 통도사 서운암 천연염색축제 운영위원장을 맡는 등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문체부의 '관광두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021년 2월에는 전국의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 가운데 우수한 주민사업체를 집중 육성하는 '관광두레 으뜸두레'에도 선정됐다.

부부는 관광두레를 계기로 옛 문헌에서 전해 내려오는 '173가지 세상의 모든 색'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산청173'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뜻을 같이하는 지역민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전통 한옥과 문화재로 지정된 옛 담장이 잘 어우러진 남사예담촌에서 천연염색 체험과 전통 공예품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구를 살리는 착한 천연염색'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수년 전부터는 산청천연염색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매년 함께 만든 작품을 동의보감촌과 남사예담촌 등에서 전시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박영진·김옥순 대표는 "우리 전통 한약제는 대부분 우수한 천연염제다. 그렇기에 수많은 약초가 자생하는 지리산 자락 산청군은 염제를 구하기에 최적지"라며 "뜻이 있는 주민들과 함께 전통 천연염색 기법이 주는 자연의 미를 대중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우수한 지리적 여건과 천연염색을 배우고자 하는 인적자원이 더해진다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복색을 재현한 것은 물론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해 온 두 분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 산청의 한방약초를 활용한 천연염색이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괴산군, 해외 입양인 카라 보스(강미숙)씨 명예군민으로 선정

충북 괴산군은 지난 29일 카라 보스(한국명 강미숙)씨를 아홉 번째 명예군민으로 선정했다.

카라 보스씨는 지난 5월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괴산에서 어머니를 찾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담긴 내용이 방송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1981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카라 보스씨는 1983년, 충북 괴산에서 기아로 발견됐고 이듬해 미국 미시간주 지역으로 입양됐다.

미국에서 성장한 그녀는 2007년 네덜란드인 남편과 결혼해 현재는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다.

6년전 딸을 출산하면서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2016년부터 자신의 과거를 찾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로 추측되는 사람을 찾았으나 진실로 다가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어머니를 찾겠다는 절박함과 간절한 소망으로 해외 입양아 최초로 2019년 11월 아버지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친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아버지는 그녀의 존재를 부정했으며, 안타깝게도 그 해 12월 작고했다.

하지만 카라 보스씨는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자신의 어머니를 찾고 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카라 보스(강미숙)씨의 사연을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괴산군민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할 것이며, 어머니를 찾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예군민증과 패는 카라 보스(강미숙)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네덜란드로 보내질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21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지정 사업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는 '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 지정 사업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21.3.25~5.13)한 결과 5개 지자체(광주, 대구, 서울, 경기, 제주)가 선정되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전남권(전남, 광주)과 경북권(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 건립을 공모한 결과, 광주시 호남권역재활병원과 대구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선정되었다.

전남도와 경북도의 경우,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보완 제출받아 재평가 시행 후, 최종 선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제주권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를 공모하여 선정 평가를 진행한 결과, 지정병원에 서울시 서울재활병원과 경기도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이 선정되었고, 지정센터에 제주시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2년까지 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총 10개 의료기관 건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건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충남권, 경남권)와 재활의료센터 4개소(전북권, 충북권, 강원권(2)) 건립을 추진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는 증가하는 장애아동 의료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기관이 갖춰져 있는 수도권과 제주권의 기존 의료기관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이다.

향후 건립·지정되는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센터는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 복귀 지원, 부모·형제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지정을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창녕군,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수탁기관 선정

내년 1월 개원 예정, 입소인원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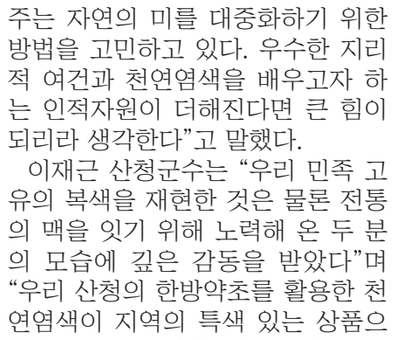
창녕군은 지난 29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창녕군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법인 희연'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정우 군수는 "치매전담요양원은 관내 치매 어르신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족들의 요양부담을 덜어 주는 요양시설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운영할 수탁기관 선정에 심도있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희연에서 단독으로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 받았고, 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적합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정한 검토·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창녕군 공립 치매전담요양원은 대합면 신당리 소재 구.구룡초등학교 부지에 총사업비 74억원(국비 31억원, 도비 8억원, 군비 35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54.63㎡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55%로 내년 1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100명(치매전담실 24명, 일반실 76명)이 생활하게 되며,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소회의실, 다목적강당, 간호사실, 요양보호사실 등이 들어선다.



한편, 지난 5월말 기준 창녕군의 인구는 60,972명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9,364명(31.76%)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1,592명으로 치매유병률은 12.12%이다.

남궁영기/기자

경남도청 역도팀, 2021 전국남여 역도선수권대회 금 6 은 5 동 3 획득

한명목(남, 67kg), 박한웅(남, 102kg) 3관왕

경남도청 역도팀(감독 김순희)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경남 고성군에서 열린 '제93회 전국남자 및 제35회 전국여자 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명목(남, 67kg)은 23일 경남 고성역도전용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일반부 67kg급에서 인상 140kg, 용상에서 171kg을 들어 올려 각각 금메달을 따낸 뒤 합계에서도 311kg으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다음날인 24일 박한웅(남, 102kg)도 남자 일반부 102kg급에서 인상 165kg, 용상에서 210kg을 들어 올려 각각 금메달을 따낸 뒤 합계에서도 375kg으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또한, 황보영진(여, 81kg)은 인상·용상·합계 은 3개, 임영철(남, 89kg)은 인상·합계 은 2개, 박상현(남, 61kg), 김은영(여, 49kg)은 인상에 각 동 1개, 김성민(남, 81kg)은 용상에 동 1개를 획득했다.

아울러 한명목(남, 67kg)선수와 강윤희(여, 87kg) 선수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우리나라 도쿄올림픽 역도 출전선수 8명 중 경남도청 소속 선수 2명이 선발됐으며 특히 현 국가대표선수가 아님에도 출전권을 따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김창덕 경남도 체육지원과장은 "경남의 명예를 빛내주신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의 선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올림픽을 포함한 여러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경남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메달을 차지한 한명목 외 7명의 지도자 및 선수에게 포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청은 역도·유도·롤러 3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도팀 14명 등 40명의 지도자 및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국립무형유산원, 7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뜨거운 무더위를 식혀줄 공개행사 전국 각지에서 열려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원하는 7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의 진행으로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7월에는 전국에서 총 10건의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능 종목은 전시 위주로, 예능 종목은 무관객 혹은 최소관람 공연으로 진행된다.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무관객 공연은 행사 종료 후에 약 한 달 전후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전승지원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총 2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민속극장 풍류에서는 서도지역(평안도 지방)에서 전승되던 민요나 잡가를 이르는 ▲「서도소리」(보유자 이춘목, 7.4.)와 여러 명의 소리꾼들이 늘어서서 소고를 치며 합창하는 민속가요인 ▲「선소리산타령」(7.21.)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인천광역시 소래포구에서는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굿으로 황해도 해주와 옹진, 연평도 지방의 마을에서 해마다 행해진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7.19.~20.) 공개행사가 열린다.

경기도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는 두레농악의 소박한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공연성이 뛰어난 남사당패 예인들의 전문적인 연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평택농악」(7.18.) 공개행사가 열린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2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한국의 식생활에서부터 제사의례에 이르기까지 여러 용도로 쓰이는 작은 상을 만드는 ▲「소반장」(보유자 김춘식, 7.13.~18.) 공개행사가 열리며, 광양장도전수관에서는 일상생활이나 호신용 또는 장신구로 사용되는 작은 칼을 만드는 ▲「장도장」(보유자 박종군, 7.31.~8.1.) 공개행사가 열린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예천읍 궁시장 자택공방 전시실에서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능인 ▲「궁시장」(보유자 권영학, 7.8.~10.)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2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영예능전수관 특설무대에서는 우리나라 남부지역 전통 마당놀이로 서민생활의 애환을 잘 담고 있는 ▲「통영오광대」(7.3.) 공개행사가,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는 오방신장무의 춤사위가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인 ▲「가산오광대」(7.31) 공개행사가 열린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는 갓을 쓰기 전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말총으로 엮어 머리띠를 만드는 ▲「망건장」(보유자 강전향, 7.30.~8.1.) 공개행사가 열린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순희/기자

염쟁이 유씨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찾아오다.

삶과 죽음을 유쾌하게 풀어내다! 연극 '염쟁이 유씨'

대한민국 모노드라마의 독보적인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염쟁이 유씨'가 사천시민을 찾아온다.

30일 사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삶과 죽음을 유쾌하게 풀어낸 연극 '염쟁이 유씨'가 오는 7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사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린다. 공연시간은 90분이며, 공연시작은 저녁 7시 30분이다.

죽음'이란 소재를 다룬 '염쟁이 유씨'는'너무 심각하거나 가볍지 않게, 울고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죽음 이후에 남겨진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연극이다.

한 사람이 삶을 마무리하고 이승을 떠나며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회고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유한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한국의 전통 장례문화를 흥미롭고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것은 물론 1인 15역의 신들린 연기력을 펼치는 유순웅 배우의 모노드라마를 통해 3대가 울고 웃으며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2006년 초연부터 지금까지 3,000회가 넘게 상연된 스테디셀러 작품이자 수년째 '청소년 자살방지 캠페인'에 이바지하고 있는 공연으로서'좋은 삶이 좋은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번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천문화재단 공연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문화재단 관계자는 "공연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무대 위에 객석을 설치해 소공연장 연극의 맛을 온 가족이 함께 느끼며 관람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영주시, 202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첫 공연 댄스컬 '공주와 개구리악동들' 개최

경북 영주시는 오는 7월 2일 오후 1시 30분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변지현 아토무용단의 우수작품 레퍼토리 공연으로 댄스컬 '공주와 개구리악동들'이 개최된다.

영주문화예술회관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상북도, 경북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무용과 음악, 극적인 요소(구연동화)가 함께 어우러진 댄스컬 공연으로 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작품이다.

'제1장 숲속의 왈츠'를 시작으로 '제7장 공주와 왕자의 결혼파티'까지 총7장까지 구성돼 있으며,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등을 초청해 재미와 교훈이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소요시간은 60분이며, 안전하고 즐거운 공연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예매 관련 문의는 아토무용단으로 하면 되며, 기타 공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밴드(까치홀)을 참조하거나 문화예술회관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기/기자

남원시 "코로나19 상황 속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박차"

남원시는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획공연, 문화예술단체 각종 행사, 문화시설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남원미술에듀센터와 복합형 공공도서관, 기문가야 홍보관 건립의 문화기반 구축사업 등에 사업비 약 193억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다.

기획공연으로 상반기 '남원시립국악단 비대면 유튜브 공연',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열녀춘향 수절가'' 등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성악 '한국을 빛내는 목소리, The Best Voice', 뮤지컬 '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뮤지컬 3DIVA 콘서트', 발레 '나의 어린왕자 이야기'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춘향미술대전, 춘향사진대전, 춘향 전국무용경연대회 등 각종 공모전 및 경연대회와 남원문화대학, 인문학 강의, 남원문화원사업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 사업들은 행사규모 축소, 마스크, 손소독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일부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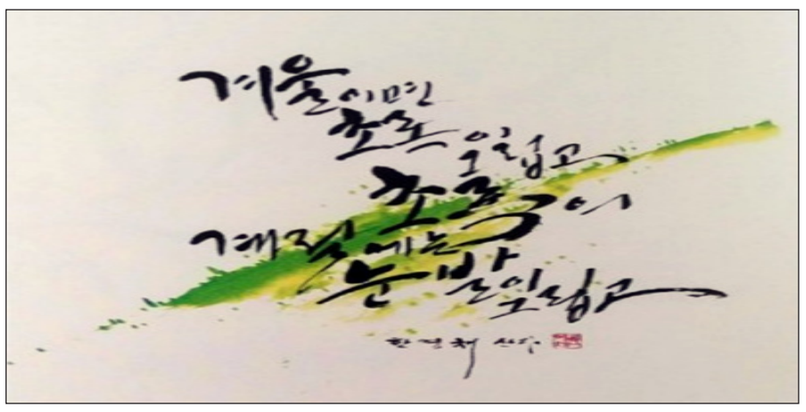
또한, 남원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도서관, 명창의여정, 국악연수원 등에서 기획전시, 청소년 진로아트캠프, 비대면 '미술관 집콕놀이', 책값돌려주기, 책배달, 북아트 체험, 국악교실 등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술 교육·체험과 뉴미디어(AR, VR 등) 전시기획 등이 진행될 남원미술에듀센터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공공도서관 및 전시·디지털자료실과 체험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될 기문가야 홍보관 건립 등이 부지매입, 설계용역 등의 사업절차가 시작되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도 계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올해 사업이 시작되는 남원미술에듀센터, 복합형공공도서관, 기문가야 홍보관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울산시북구 문화쉼터 몽돌,예술가모녀의 콜라보 전시



예술 분야에서 각자의 세계를 구축한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울산 북구 문화쉼터 몽돌은 7월 한달 동안 캘리그라피 작가 한영채 씨와 TV 광고 아트디렉터 김하영 씨를 초대해 '한글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동행' 전시를 연다.

어머니인 한영채 씨는 한석봉서예미술대전 캘리그라피 추천작가로, 울산미술대전 입선, 울산전국문인화대전 특별상, 제5회 대한민국기로서화공예대전 은상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유명작가 국회 초대전, 한빛갤러리 삼색전, 제6회 대한민국서화공예명장대전 등에 참여했다.

시인으로도 활동하는 그는 시집 '모량시편', '신화마을', '골목 안 문장들', '모나크 나비처럼' 등을 펴냈다.

2019년 양정작은도서관 상주작가, 문학 큐레이터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예글 캘리그라피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한 작가는 "캘리그라피는 개인의 자유로움과 개성을 추구하는 그림글자"라며 " 내 그림글자의 뿌리는 시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딸 김하영 씨는 TV 광고 속 미술작품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는 광고 아트디렉터다.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을 졸업했고, 하이하이 아트프로덕션 대표, 한국문화예술교육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로 예술을 만나다'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글을 모티프로 한 현대미술작품을 선보인다.

어머니 한 씨는 "딸과 함께여서 용기를 내어 전시를 열 수 있었다"며 "이번 전시에서 많은 분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안양문화예술재단,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공감시대 '전통예술이야기' 안양아트센터 야외무대에서 개최

안양문화예술재단은 7월 3일 오후 3시 안양아트센터 야외공연장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공감시대' 공연으로 안양지역예술단체 해오름예술단의 '전통예술이야기'를 공연한다.

경기도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일이 속하는 주간을'경기도 문화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경기도와 안양시의 지원으로 안양아트센터 야외공연장과 평촌아트홀 등에서 금년 10월까지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다양한 지역 밀착 맞춤형 공연을 해당 주간에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7월 3일에 선보이는 '전통예술이야기'는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해오름예술단의 퓨전장구, 난타, 한국무용,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전통문화예술 공연으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안양아트센터 야외무대는 작년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철거하고 쉼을 위한 문화공간을 콘셉트로 새롭게 조성하고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야외무대와 광장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재단은 "경기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코로나 19로 몸과 마음이 지쳤던 시민들이 문화로 위로 받고 행복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공연 관람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종균/기자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8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4만 건

2021.5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97,524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2021.4월, 93,068건) 대비 4.8% 증가, 전년 동월(2020.5월, 83,494건) 대비 16.8% 증가하였으며, 5년 평균(76,540건) 대비 27.4% 증가하였다.

또한, 2021.5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470,401건으로 전년 동기(482,300건) 대비 2.5% 감소, 5년 평균(369,738건) 대비 27.2%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47,389건)은 전월 대비 5.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 지방(50,135건)은 전월 대비 4.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5.9% 증가

2021.5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236,324건)은 전년동기 대비 10.5% 감소, 지방(234,077건)은 7.2% 증가하였다.

(유형별) 아파트(61,666건)는 전월 대비 4.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 아파트 외(35,858건)는 전월 대비 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7.6% 증가

2021.5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315,153건)은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 아파트 외(155,248건)는 17.0% 증가하였다.

2021.5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173,631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186,560건) 대비 6.9% 감소, 전년 동월(170,747건) 대비 1.7% 증가, 5년 평균(151,018건) 대비 15.0% 증가하였다.

또한, '21.5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958,342건)은 전년 동기(938,477건) 대비 2.1% 증가, 5년 평균(807,668건) 대비 18.7%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119,599건)은 전월 대비 6.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 지방(54,032건)은 전월 대비 8.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

(유형별) 아파트(80,171건)는 전월 대비 7.5% 감소, 전년동월 대비 0.3% 증가, 5년 평균 대비 17.2%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93,460건)는 전월 대비 6.4% 감소, 전년동월 대비 2.9% 증가, 5년 평균대비 13.1%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전세 거래량(103,466건)은 전월 대비 3.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 5년 평균대비 16.8% 증가하였다.

월세 거래량(70,165건)은 전월 대비 11.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2% 증

가, 5년 평균 대비 12.4% 증가하였다.

2021.5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1.9%로 전년 동월(40.2%) 대비 1.7%p 증가, 5년 평균(41.9%)과 동일한 수준이다.

최광수/기자

전라남도, 8.2GW 해상풍력 '전남형 상생일자리' 알리기 속도

전라남도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1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알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9일 진도 쏠비치에서 목포대학교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사업단과 '전남형 상생일자리' 포럼을 열어, 해상풍력 핵심기업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럼에는 두산중공업, 유니슨, CSWIND 등 해상풍력 관련 국내 유수의 기업체와 한국풍력산업협회, 남동발전,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계획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제도개선 등 해상풍력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자리를 함께한 기업, 유관기관과 전남 해상풍력사업 성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또한 한국풍력산업협회의 '국내외 해상풍력 전망', 남동발전의 '해상풍력 국산화'발표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과 5월 국내 철강 관련 기업해상풍력 기업 15개사와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온택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초에는 도내 전력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해상풍력사업 설명회도 가졌다.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사업을 통해 450개 연관기업을 유치육성하고, 양질의 12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미래 지역 신산업 개발의 선도모델로 만들 계획"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발전 방안을 적극 반영해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이 성공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용안/기자

광명시, 공공배달앱'배달특급'오픈...중개수수료 1%, 다양한 할인혜택

중개수수료 1% 소상공인 부담해소, 광명사랑화폐 결제 시 15% 할인 혜택

광명시는 29일부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공식 운영한다.

배달특급은 배달앱의 독과점 체제 개선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돕고 비대면 산업 육성과 다양한 판로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함께 개발한 플랫폼이다.

배달특급은 광고비가 없고 1%의 중개수수료로 기존 배달앱보다 저렴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에 대한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부 결제 수수료 인하 혜택과 광명사랑화폐 결제 시 지역화폐 10% 선 할인과 결제 쿠폰 5%의 지급으로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픈 기념으로 총 1만원 할인, 주말 특별 할인 10%, 100원 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배달특급 광명시 오픈을 기념하여 29일 철산동 상업지구 광장에서 시연회를 열고 배달특급의 활성화와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시의원, 도의원, 나상준 광명시 소상공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내 단체장, 골목상권상인회 등 50여 명이 참석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공을 기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배달특급' 앱을 통해 주문하고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하는 시연회를 가진 후,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동안 특정 민간업체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 독점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실질적인 소득도 적었지만, 배달특급으로 인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사업의 조기 안착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9일 현재 532개소의 공공배달앱 가맹점을 모집했으며 연말까지 목표한 800개 가맹점 확보를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이재욱 前차관 초청 경북도 미래 농업 세미나 개최

경북농업기술원은 지난 29일 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연구직 공무원과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이 참석해 경북농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前차관이 "우리나라 농업정책과 경상북도 농업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농업정책과 미래형 연구·지도사업 추진방향,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비 방안, 초고령 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책과 농식품 개발 등 농업전반에 직면한 문제를 살펴보고 지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욱 前차관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지도사를 시작으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식품산업정책실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55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재직한 우리나라 농업 정책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이다.

이날 도출된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ICT 기반 기상재해 경감, 아열대 작물 개발, 차세대 스마트팜 고도화, 화상병 등 식물감염병 대응, K-면역식품 소재화 및 수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에 대하여 대학과 협력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구체화 할 계획이다.

신용습 경북농업기술원장은 경북농업 미래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 25회와 업무협의회를 60차례 가졌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경북농업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미래농업을 잘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김세기/기자

경기도, 대기업 노하우 전수로 스마트공장 수준↑·· 참여기업에 도비 최대 6천만원 추가 지원

경기도가 올해 정부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삼성전자)'에 참여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노하우를 중소·중견기업에 전수함으로써 제조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의 부담을 한층 더 낮춰, 보다 적극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등 제조혁신에 몰두하도록 돕기 위해 도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사업 참여기업은 '신규구축', '고도화' 등 지원유형에 따라 자부담금 초과분의 60%내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구축'은 최대 4천200만 원, '고도화'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경력 15~20년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삼성전자의 전문 멘토가 직접 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에 2개월 내외로 상주하며, 스마트화가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식의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도비 지원을 받을 기업을 6월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모집대상은 올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삼성전자)' 선정된 도내 소재 기업으로, 구축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단, 당해연도 공장 이전계획이 있거나, 동일 사업기간 내 정부 또는 민간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에 신청한 기업, 삼성전자 1차 협력기업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급변하는 제조업 환경에서 스마트공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사업은 삼성전자의 전문 멘토가 기업현장에 직접 투입돼 노하우 전수가 이루어지는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부터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 장비 등의 스마트공장 인프라 구축을 돕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공장 확산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사업을 개선·확대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경상남도,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억 원 투입

지난해 보다 8억 원 증액된 29억 9천 5백만 원 지원

경상남도는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8억 원 증액된 총 29억 9천 5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부 사업으로는 △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 토종벌 육성사업 △ 도시양봉 지원 사업 △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사업 △ 양봉 보조사료 구입 지원 사업이 지원된다.

사업별로 보면 먼저 양봉농가 생산량 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벌통, 저온저장고 등 총 6종의 기자재를 지원하는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16억 원을 지원하며,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이 우수한 토종벌 육성사업에 5천 8백만 원, 소비자에게 양봉 관련 학습과 체험을 통해 양봉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양봉 지원 사업에 2천 8백만 원을 투입한다.

또한, 꿀벌을 잡아먹고 국내 생태계에도 큰 피해를 주는 말벌을 퇴치하는 지원사업에는 2천 7백만 원 투입되며, 꿀벌 질병예방 및 면역력 증가를 통해 양봉농가 사육기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 사업에는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잦은 비와 저온현상에 벌꿀 생산량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위해 양봉 보조사료 구입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도 관계자는 "양봉산업 육성은 사육농가의 소득창출 뿐만 아니라 화분매개를 통한 생태계 공익적 가치를 지닌 만큼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명품 양봉산물 생산 및 농가들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시흥시, 원산지표시 홍보활동 전개 "음식점 원산지표시 꼭 지켜주세요"

시흥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품목, 표시기준, 표시방법 등을 내용으로 담은 홍보 안내문과 원산지표시판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 6,000부, 원산지 표시판 1,266개를 제작해 배부한 바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이다. 총 24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해야한다.

농축산물은 9개 품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이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등 수산물 15개 품목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식품위생업소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매체(SNS, 전광판, 홍보인쇄물 등)를 활용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현대엔지니어링, 2,703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견본주택 7월 2일 개관

▶ 지하 4층(D2블록 지하 3층)~지상 30층, 전용면적 59㎡ · 70㎡ · 84㎡, 22개 동, 2개 블록 2,703세대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

▶ 단지 가까이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 계획 부지 및 고등학교 나란히 위치

▶ 2개 블록 당첨자 발표일 달라 중복 청약 가능, 중복 청약 시 당첨 확률 높일 수 있어

▶ 7월 12일(월) 특별공급, 13일(화) 1순위 해당지역, 14일(수) 1순위 기타지역, 15일(목) 2순위 청약 접수 진행

현대엔지니어링은 7월 2일(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D1블록과 D2블록에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의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전예약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gojin_station)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된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지하 4층(D2블록 지하3층)~지상 30층, 22개 동, 전용면적 59㎡A · 59㎡B · 70㎡ · 84㎡, 2,703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각 블록의 세대수는 D1블록이 1,345세대, D2블록은 1,358세대로 구성된다.

■ 단지 가까이 교육 및 교통, 생활 인프라 위치, 다양한 개발호재 수혜 기대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고림진덕지구에 속해 있으며, 고림지구와도 연접해 있다. 고림지구 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 계획 부지와 고등학교가 나란히 위치해 있어 고림지구의 생활, 교육 등 다양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에버라인 고진역을 통해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기흥역 및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용인IC와 향후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2022년 예정),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이천~오산(동탄) 구간(2022년 예정)의 이용도 가능하다.

단지 2개 블록 사이에는 소공원이 마련되고, 주변에는 봉두산과 경안천 등 다양한 녹지 및 수변공간도 마련돼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또 이마트 용인점, 용인중앙시장, 용인서울병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내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해 물류단지 조성 사업인 '용인 국제물류단지4.0', '용인플랫폼시티' 등도 계획돼 있어 지역가치 상승과 단지의 미래가치 상승까지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 힐스테이트만의 평면 특화설계와 각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마련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이 우수하며 통풍이 잘되는 4Bay 판상형 구조(일부 세대 제외)를 도입했고,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일부 세대 제외) 넉넉한 수납 공간 설계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 했다.

전용면적 59㎡는 판상형 59㎡A과 타워형 59㎡B 평면으로 나뉘며, 59㎡B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LDK 구조 거실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방 아일랜드(식탁 기능을 갖춘 아일랜드+장식장)도 제공되며 아일랜드 측면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돼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했다. 또 전용면적 70㎡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주방 팬트리가 제공되며, 전용면적 84㎡는 알파공간을 통해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 및 복도에서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전 타입에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현관 중문, 현관 에어 샤워 시스템을 비롯해 기능성 오븐, 침니형 후드, 하이브리드 쿡탑, 파우더 조합형 붙박이장,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등을 제공해 주거 편의성을 더했다.

D1블록, D2블록 각 단지 내에는 스포츠존과 에듀존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주차공간의 지하화로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했으며, 단지 내 조경 설계도 정원 형식을 도입하여 다채로운 조경과 조형물들이 각 단지 내에 배치될 예정이다.

■ 2개 블록 중복 청약 가능, 2개 블록 청약은 12일(월) 특별공급, 13일(화) 1순위 해당지역 등 청약 일정 동일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D1블록과 D2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여 중복 청약 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청약 일정은 7월 12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화) 1순위 해당지역, 14일(수) 1순위 기타지역, 15일(목)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D1블록이 7월 21일(수), D2블록은 7월 22일(목)이다. 정당 계약은 8월 6일(금)~8월 16일(월)까지 11일간 진행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예비 청약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의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영상도 유튜브 채널인 '내집마련TV'를 통해 공개한다. 견본주택을 방문하지 않고도 내부 평면과 인테리어 등 유니트 곳곳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번지 일원(지하철 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마련돼 있다.

분양문의 : 1877-3838

홈페이지 : https://www.hillstate-hec.co.kr/gojin_station

최만식/기자